

충남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목 차

01

서론	001
1. 연구배경 및 목적	001
2. 연구범위 및 방법	002
2.1 연구범위 및 내용	002
2.2 연구방법 및 구성	004

02

이론 고찰	006
1. 해안경관관리 연구	006
2. 해안경관의 개념과 유형	008
2.1 해안경관의 개념	008
2.2 해안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010
3. 해안경관 관련 법제 현황	014
3.1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법	014
3.2 해양수산 관련법	016
3.3 환경생태 관련법	017

03

충남 해안현황 및 경관특성	019
1. 자연현황	020
1.1 연안현황 및 해안선	020
1.2 연안습지	022
1.3 해빈, 해안사구, 해수욕장 현황	024
1.4 태안해안국립공원	025
1.5 산림	026

2. 자연경관요소	028
2.1 해안	028
2.2 갯벌	029
2.3 해안림	030
2.4 지형적 요소	031
3.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	032
3.1 7개 시·군 해안지역 용도지역지구 현황	032
3.2 법정보호구역 현황	034
3.3 항만, 어항 현황	038
3.4 방조제	039
3.5 산업단지	039
4. 인공경관요소	041
4.1 건축물	041
4.2 도시기반시설	043
4.3 해안기반시설	044
4.4 방조제	046
4.5 발전소와 산업단지	047
4.6 농경지 및 염전	048
4.7 공공공간	049
4.8 공공시설물	050
4.9 공공매체	051
5. 경관저해요인	052
5.1 자연요소 훼손	052
5.2 건축물	053
5.3 송전탑	054
5.4 어촌 주거	055
5.5 가설건축물	056
5.6 과도한 조형성과 색채	057
5.7 어구 및 쓰레기	058
6. 시·군 해안경관 특성	059
6.1 보령시	059

6.2 아산시	060
6.3 서산시	060
6.4 당진시	062
6.5 서천군	063
6.6 홍성군	064
6.7 태안군	065
7. 소결	066

04

충남 해안 관련계획 분석 068

1. 국가계획	068
1.1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 계획	069
1.2 해양수산 관련 계획	071
1.3 환경생태 관련 계획	074
2. 충남계획	080
2.1 충남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 계획	080
2.2 충남 해양수산 관련계획	083
2.3 충남 환경생태 관련계획	090
3. 충남 해안지역의 정책 방향	093
3.1 국가계획의 정책 방향	093
3.2 충남계획의 정책 방향	096

05

충남 도 · 시 · 군 경관계획 분석 099

1. 도 · 시 · 군 해안경관계획	099
1.1 경관구조의 설정	100
1.2 해안경관자원과 조망점	107
1.3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관리범위	120
1.4 해안경관관리 수단	124

2. 충남 경관자원 관련 개발·보전 정책과 사업	125
2.1 개발지향의 경관자원	126
2.2 보전지향의 경관자원	129
2.3 개발 vs 보전관점이 공존하는 경관자원	130
2.4 시·군별 경관자원의 관리방향	131

06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141
---------------	-----

1. 상위계획의 반영과 연계	142
1.1 국가 및 충남 해안공간 정책의 반영	142
1.2 해안경관 관련 사업 및 지역·지구의 연계	144
1.3 경관자원의 보전과 개발 방향 정립	146
2. 해안경관계획의 구체화	146
2.1 도·시·군 경관계획의 위계 정립	147
2.2 도 차원의 해안경관자원 조사체계 정립	147
2.3 도·시·군 경관구조의 연계	147
2.4 구체적인 해안경관 관리범위의 설정	148
2.5 해안경관계획의 상세화	149
3. 도·시·군 해안경관관리 체계 마련	149
3.1 해안경관심의 강화와 해안경관사업의 다각화	149
3.2 해안경관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0

07

결론	151
----	-----

■ 참고문헌	152
--------	-----

■ 부록	155
------	-----

표목차

[표 2-1] 해안경관관리 선행 연구	006
[표 2-2] 경관, 해안경관의 의미	009
[표 2-3]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 구분	011
[표 2-4]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 구분 기준	013
[표 2-5]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과 경관요소	013
[표 2-6]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법	015
[표 2-7] 해양수산 관련법	016
[표 2-8] 환경생태 관련법	017

[표 3-1] 충남 해안지역 주요 경관요소	019
[표 3-2] 충남의 해안선	022
[표 3-3] 충남의 갯벌 면적	023
[표 3-4] 충남의 해수욕장 현황	024
[표 3-5] 해안지역 7개 시·군 용도지역 현황	032
[표 3-6] 해안지역 7개 시·군의 도시, 비도시지역 비율	033
[표 3-7] 충남 해안지역 보호구역 현황	034
[표 3-8] 충남의 항만, 어항 현황	038
[표 3-9] 충남의 어항 현황	038
[표 3-10] 충남의 방조제 현황	039

[표 4-1] 해안지역 국가계획 (분석대상)	068
[표 4-2]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내 충남 해안 관련 사업	073
[표 4-3] 충남 연안통합관리 전략별 추진과제	077
[표 4-4] 충남 연안정비사업 현황	078
[표 4-5] 해안지역 충남계획 (분석대상)	080
[표 4-6] 도 종합계획 중 해안경관 관련 시책과 사업	081
[표 4-7]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분야 추진과제	084

[표 4-8]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 · 관광분야 추진과제	085
[표 4-9]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 아름다운 여항 분야 추진과제	086
[표 4-10]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분야 추진과제	086
[표 4-11] 국제물류 · 항만의 거점 조성분야 추진과제	086
[표 4-12] 해양수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추진과제	087
[표 4-13] 충남 골든오션 6대 프로젝트	087
[표 4-14] 충남 어촌체험 관광마을 현황	089
[표 4-15] 충남 마리나항만 후보지	089
[표 4-16]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부문계획 중 해안경관과 관련된 전략과 사업	090
[표 4-17] 충남 생태복원 가능지 및 대상지	091
[표 4-18] 충남 해안지역 국가계획의 개발, 보전, 통합관리 목표	093
[표 4-19] 국가계획의 충남 해안지역 정책방향	094
[표 4-20] 충남 해안지역 정책 및 사업	096
[표 4-21] 충남계획의 해안지역 관리방향	097

[표 5-1] 경관계획수립지침 구성과 충남 경관계획 분석 항목	100
[표 5-2] 도 · 시 · 군의 경관권역, 경관축 구분	107
[표 5-3] 도 · 시 · 군의 경관거점 유형	108
[표 5-4] 시 · 군 경관계획상의 해안 조망점	109
[표 5-5] 충남 해안경관자원의 유형	111
[표 5-6] 충남 해안경관자원 내 조망점 유형	113
[표 5-7] 보령시 해안경관자원	114
[표 5-8] 아산시 해안경관자원	115
[표 5-9] 서산시 해안경관자원	115
[표 5-10] 당진시 해안경관자원	116
[표 5-11] 서천군 해안경관자원	117
[표 5-12] 홍성군 해안경관자원	118
[표 5-13] 태안군 해안경관자원	118
[표 5-14] 시 · 군 경관계획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	120
[표 5-15] 시 · 군 경관계획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리수단	123
[표 5-16] 도 및 시 · 군의 가이드라인과 심의대상	125

[표 5-17] 개발지향의 충남 해안경관자원	127
[표 5-18] 보전지향의 충남 해안경관자원	129
[표 5-19] 개발과 보전정책이 공존하는 충남 해안경관자원	130
[표 5-20] 보령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1
[표 5-21] 아산시 및 당진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3
[표 5-22] 서산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4
[표 5-23] 서천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5
[표 5-24] 홍성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7
[표 5-25] 태안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138

[표 6-1] 상위계획의 해안공간 정책 방향	142
[표 6-2] 해안경관관리와 관련된 사업, 지역·지구, 계획	144
[표 6-3] 국가 및 충남계획의 경관자원 관리방향	14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002
[그림 1-2] 연구 구성	005
[그림 2-1] 경관, 연안경관, 해안경관의 의미	009
[그림 2-2] 해안경관 관련법	014
[그림 3-1] 충남의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현황	021
[그림 3-2] 충남의 갯벌	023
[그림 3-3] 충남의 해수욕장 분포	025
[그림 3-4] 태안해안국립공원	025
[그림 3-5] 충남 표고분석도	026
[그림 3-6] 충남 생태자연도	026
[그림 3-7] 충남의 해안림	027
[그림 3-8] 충남 비오톱 1등급(산림) 분포도	027
[그림 3-9] 도시지역	034
[그림 3-10] 관리지역	034
[그림 3-11] 자연환경보호지역	034
[그림 3-12] 수산자원보호구역	035
[그림 3-13] 충남 해안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035
[그림 3-14] 가로림만해양보호구역	036
[그림 3-15] 생태경관보전지역(소항사구)	036
[그림 3-16] 습지보호지역(서천갯벌)	036
[그림 3-17] 신두리사구와 두웅습지	036
[그림 3-18] 충남 해안지역 문화재보호구역	037
[그림 3-19] 충남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040
[그림 3-20] 보령시 해안지역	059
[그림 3-21] 아산시 해안지역	060

[그림 3-22]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061
[그림 3-23] 서산시 천수만 일대	061
[그림 3-24] 당진시 해안지역	062
[그림 3-25] 서천군 해안지역	063
[그림 3-26] 홍성군 해안지역	064
[그림 3-27] 태안군 해안지역	065

[그림 4-1] 충남 해안림 관리방식	092
----------------------	-----

[그림 5-1] 충남 5대 경관권역	101
[그림 5-2] 보령시 경관권역	101
[그림 5-3] 아산시 경관권역	101
[그림 5-4] 서산시 경관권역	101
[그림 5-5] 당진시 경관권역	102
[그림 5-6] 서천군 경관권역	102
[그림 5-7] 태안군 경관권역	102
[그림 5-8] 홍성군 경관권역	102
[그림 5-9]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권역	103
[그림 5-1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103
[그림 5-11] 충남관광개발계획	103
[그림 5-12]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권역 구분	103
[그림 5-13] 충남 4대경관축	105
[그림 5-14] 보령시 경관축	105
[그림 5-15] 아산시 수변축	105
[그림 5-16] 서산시 경관축	105
[그림 5-17] 당진시 경관축	106
[그림 5-18] 서천군 경관축	106
[그림 5-19] 홍성군 경관축	106
[그림 5-20] 태안군 경관	106
[그림 5-21] 보령시 조망점	109
[그림 5-22] 아산시 조망점	109

[그림 5-23] 서산시 조망점	110
[그림 5-24] 당진시 조망점	110
[그림 5-25] 서천군 조망점	110
[그림 5-26] 홍성군 조망점	110
[그림 5-27] 태안군 조망점	110
[그림 5-28] 해안경관관리범위	121
[그림 5-29] 연안육역, 연안해역	121
[그림 5-30] 가로단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122
[그림 5-31] 연안육역 개념에 따른 관리범위 설정	122
[그림 5-32]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범위 설정	122
[그림 5-33] 연안육역 개념에 따른 관리 범위 설정	122

[그림 6-1]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141
[그림 6-2] 충남 광역산림생태축과 비오톱 1등급 산림 분포도	145
[그림 6-3] 환경보전지역 현황	145
[그림 6-4] 충남 해안림 관리방식	145
[그림 6-5] 충남 핵심보전대상산지 분포	145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해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지역과 해안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충남은 전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해안에 접하고 있으며 해안 길이는 1,242km에 달한다. 전체 해안 중 자연해안선 비율은 61.92%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갯벌은 357km², 해안사구는 42개소(전국의 31%), 해안방재림은 4.2km(전국의 24.6%)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으며 30여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이처럼 충남의 해안지역은 자연자원이 경관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요소라 도시지역과 달리 자연요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안지역과 해안경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연해안선의 인공화, 갯벌면적의 감소, 연안침식 증가, 건축물과 시설물로 인한 경관훼손의 문제들은 자연요소를 인공요소로 대체하는 해안공간의 개발과 관련이 깊다.

즉, 해안지역 공간과 경관관리의 문제는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관법과 경관계획에 기반한 경관관리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경관법은 타법과 계획에 의한 사업을 직접 제어할 수 없고 경관심의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경관관리는 자연자원의 보전보다는 개발과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낙후된 경관을 신규 사업을 통해 개선하려는 경관사업의 접근 방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제 안에서 해안경관관리 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계획이 관련계획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선제적인 보전적 경관관리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해안공간은 다양한 법, 계획, 사업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안개발의 범위와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토지이용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안공간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해안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해안경관 관리방향 정립이 시급하다. 현재 도 및 시·군 경관계획에서 해안경관관리 수단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해 도 및 시·군 해안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안경관관리의 과제와 경관계획 수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의 주요 목적은 향후 도·시·군에서 해안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해안에 인접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7개 시·군으로 한정하였다.

7개 시·군의 해안경관실태 분석을 위한 경관현황 분석범위는 연안관리법상의 연안육역(해안선으로부터 500m)을 포함하며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상의 해안경관관리범위인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로 한정하였다. 도서지역은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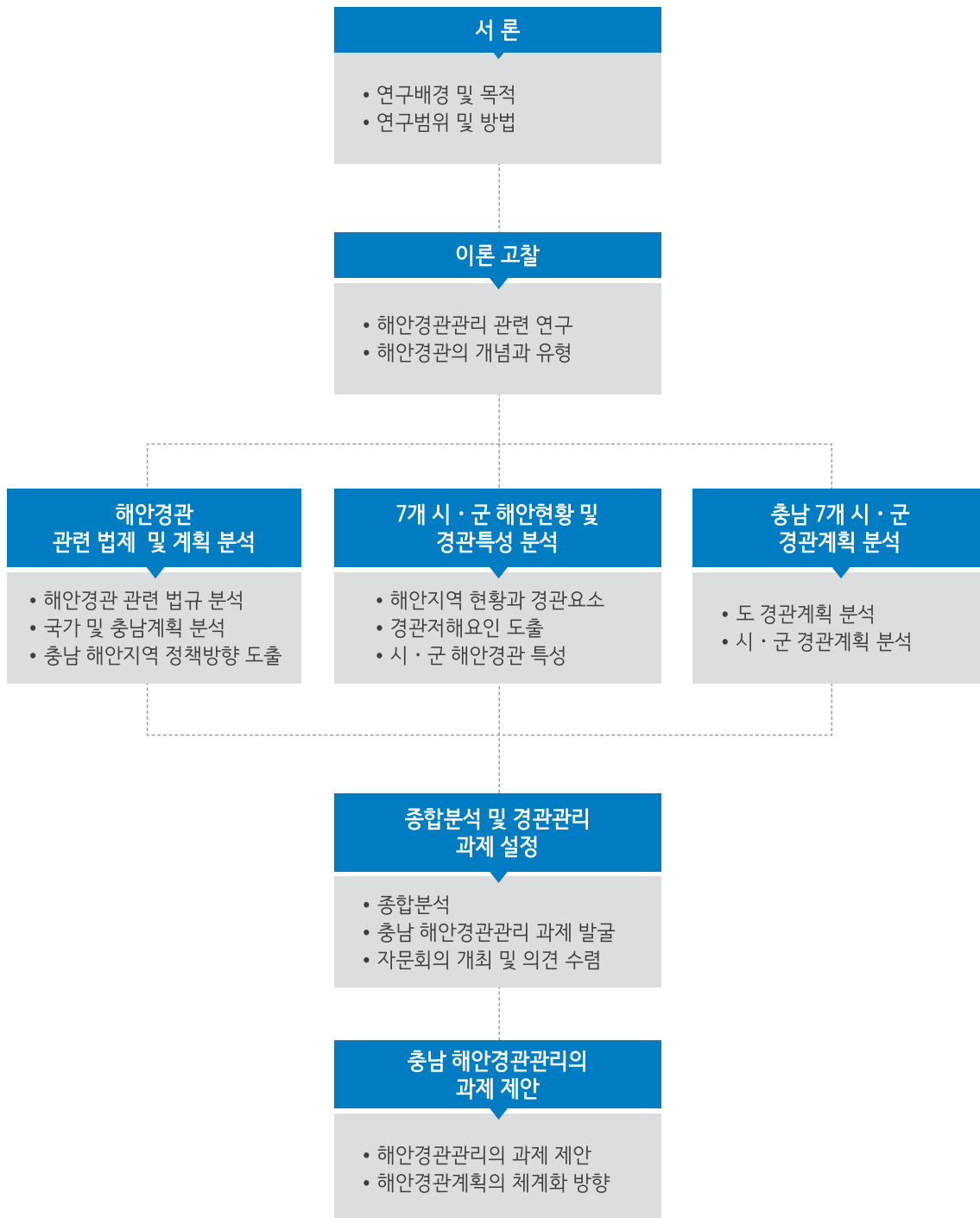
- 해안경관의 이론적 고찰
 - 해안경관관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해안경관의 개념 정립
 - 해안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 해안경관 관련 법제 분석
 -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법
 - 해양수산 관련법
 - 환경생태 관련법
- 7개 시·군 해안현황 및 경관특성 분석
 - 자연현황과 자연경관요소 분석
 -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현황, 인공경관요소 분석
 - 경관저해요인 도출
 - 시·군 해안경관 특성 종합
- 서해안 관련 계획 분석
 - 국가계획 및 충남계획 분석
 - 국토이용 및 개발, 해양수산, 환경생태 분야별 계획 분석
 - 상위계획 분석을 통한 해안지역 정책 방향 도출
- 도 및 7개 시·군 경관계획 분석
 - 충청남도 경관계획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경관계획 분석
 - 경관자원 관련 개발·보전 정책과 사업 (상위계획과 경관계획의 상관성 검토)
-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제안
 - 상위계획의 반영과 연계 (정책적 측면)
 - 해안경관계획의 구체화 (계획적 측면)
 - 도·시·군 해안경관관리 체계 마련 (실천적 측면)

2.2 연구방법 및 구성

연구 수행은 문헌조사와 현장답사에 기반하였고 충남연구원 내·외의 전문가 및 도 경관관리 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해안경관관리 관련 선행연구 및 충남 해안관련 법제 및 계획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안지역 현황 및 경관실태 조사를 위한 주요 요소와 공간을 선별하였다. 차량이동과 도보를 활용하여 7개 시·군의 주요 해안경관자원을 현장 답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안관련 주요 계획 내용을 재확인하였으며 7개 시·군별 경관특성과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 및 7개 시·군 경관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해안지역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였고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문헌분석과 현장답사를 종합화하여 충남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충남연구원 내부 연심회 2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경관관리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체 연구구성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2] 연구 구성

II. 이론 고찰

1. 해안경관관리 연구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해안경관관리 연구는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경관계획과 관리 방안에 기대고 있는 연구들과 연안,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접근하는 연구들로 구분된다.¹⁾ 두 영역은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 후자는 해안이라는 개념보다는 연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환경과 생태계보전 중심의 자연경관관리 연구라 할 수 있다.

해안경관관리에 관한 초기 연구는 동해안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한 염돈민 외(2001)의 연구와 온영태 외(2002)의 연구가 있다. 해안지역 경관관리의 주요 연구로는 윤상호 외(2003), 차주영 외(2010), 서수정 외(2011), 김경인 외(2011)의 연구가 있으며, 충남 어항의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한 이충훈(2015)의 연구가 있다. 연안관리 관점의 경관관리 주요 연구는 박창석 외(2008), 최지연 외(2011), 최영국 외(2012)의 연구가 있다.

▼ [표 2-1] 해안경관관리 선행 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및 결과
염돈민 외, 2001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 동해안 경관실태 조사 및 경관관리 방향 제시 - 어촌, 어항, 해수욕장, 횃집거리, 복합관광지구 등 6개 사례지역의 경관형성계획 제안
온영태 외, 2002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안역 통합관리방안으로서의 경관관리 방향 제시 - 우리나라 연안관리실태 및 법제 분석, 친수연안조성과 경관관리 방향 제시 - 연안경관관리를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윤상호 외, 2003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연구	- 해안경관을 어촌, 자연, 해수욕장, 친수공간, 해안형 도로, 어항경관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문제점 분석 -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을 실행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개발주체) 별로 제시

1) '일반적인'의 의미는 시각적, 물리적 관점의 경관연구를 의미한다.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및 결과
박창석 외, 2008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 방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연안의 자연생태 현황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관리방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강화 전략 제시 -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9대 핵심권역을 도출, 충남은 금강 및 보령·서천지역이 해당
차주영 외, 2010	해안경관 조망점 조성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경관자원 조사를 토대로 권역별 조망공간 조성 여건 분석 - 동서남해안의 조망점 조성 기본구상과 조성방안을 제시 - 해안경관 조망점 조성 시범사업 제시
서수정 외, 2011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해안마을 경관분석 및 관련법규·계획·사업 검토 - 해안마을 경관형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 제시 - 추진전략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관형성 계획 수립, 다수 주체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주민주도의 경관형성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제시
최지연 외, 2011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경관을 자연연안경관과 인공연안경관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관리요소 제시 - 국내 연안경관 관리 법·제도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김경인 외, 2011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할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동서남해안 대표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미 평가 - 해안경관 관리범위와 거리, 해안권별, 유형등급별로 가이드라인 제시
최영국 외, 2012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방향 및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본 연안국토의 관리방향 제시 - 연안통합관리, 연안 육역 및 해역의 이용계획, 연안 환경보전과 생태계, 연안 경관 관리,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5개 부문별 정책과제 제시
이충훈, 2015	충남의 미항조성을 위한 경관분석 및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주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디자인 개선방향 제시 - 영목항, 백사장항, 남당항, 흥원항, 무창포항, 삼길포항의 경관특성 및 공공디자인 분석 후 어촌어항 디자인 기본방향 제시

2. 해안경관의 개념과 유형

2.1 해안경관(연안경관)의 개념

해안지역의 경관을 설명하는 용어는 해안경관, 연안경관, 해양경관, 바다경관 등으로 구분되며 경관 유형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한다. 해안이란 바다에 접해 있는 육지의 한 부분을 말하며 연안(沿岸)²⁾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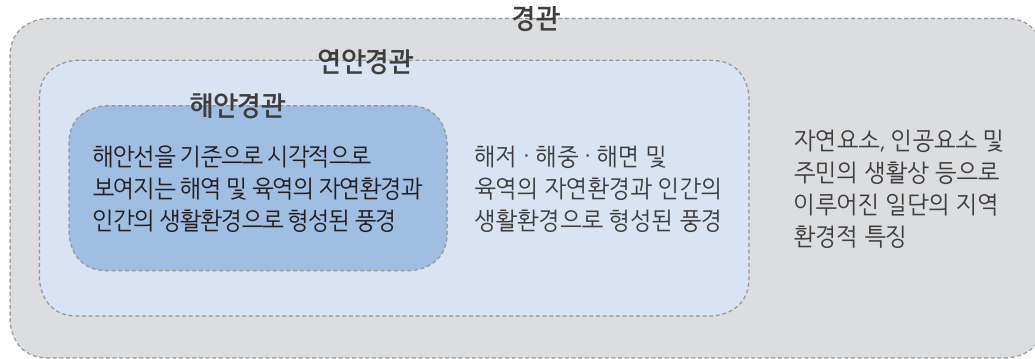
경관은 학문영역, 사용목적, 사용주체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승빈(1991, p.2)은 경관(景觀)을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경관은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상의 경관 개념 차이에서 확인된다.

표 2-2를 보면 경관법에서는 지역환경적 특징,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해안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서는 해역 및 육역의 자연환경 등이 중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해안경관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윤상호(2003)는 연안의 관점에서, 차주영 외(2011)와 김경인 외(2011)는 해안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안경관과 연안경관을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도 있다. 최지연 외(2011)는 기존 연구의 해안경관 개념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육역과 해역을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연안경관(Coastscape)의 개념을 육지(Land)와 바다(Sea)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공간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연안경관을 “해저·해중·해면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서 형성된 풍경”으로 정의하였다. 연안경관의 개념이 해안경관 개념보다 공간적, 환경적, 생태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는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바다를 의미한다. 바닷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며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 [그림 2-1] 경관, 연안경관, 해안경관의 의미

▼ [표 2-2] 경관, 해안경관의 의미

용어	정의	출처
경관	-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경관법 제2조
자연경관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 심미적인 가치를 지니는 지역 · 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해안경관	- 해안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해역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 형성되어진 풍경	해안경관관리가이드라인 (국토부 훈령)
해안경관	- 연안의 이용과 개발행위 즉, 건축물 또는 구조물 건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안의 상태로부터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게되는 영향력을 의미	윤상호 외, 2003
해안경관	- 조망의 대상인 해안(대상점)과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조망주체),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차주영 외, 2010
해안경관	- 바다와 면한 해안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환경	김경인 외, 2011
해안경관	-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육역과 해역	최지연 외, 2011
연안경관	- 해저 · 해중 · 해면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서 형성된 풍경	

2.2 해안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경관의 의미와 유사하게 경관유형도 경관자원과 요소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경관유형은 인공성의 여부나 경관자원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해안경관을 자연경관의 하위 경관유형으로만 구분하기도 하고, 해안경관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경관계획수립지침(2015)에서는 경관자원에 따라 6개의 경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관자원을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자원을 기술하고 있다. 계획수립지침상의 유형은 해안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자원이 각기 다른 경관유형에 포함되어 있어 해안경관에 초점을 맞춘 경관유형 구분은 아니다. 우선 어촌은 독립적인 경관유형이 아닌 농산어촌경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변은 자연경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염전, 갯벌, 포구 등은 농산어촌경관에 포함되어 있다.

온영태 외(2002)는 연안경관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연자원이 관리대상인 자연경관과 주거지역, 항구, 어촌, 어항 등의 정주경관, 문화경관, 교통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문화경관은 역사경관과 관광지를 포함시켰다. 윤상호 외(2003)는 해안경관의 공간적 체계를 연안(Coastal Zone), 수제부(Waterfront), 수변(Waterside)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어촌경관, 자연경관, 해수욕장경관, 친수공간경관, 해안형도로경관, 어항경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관유형 구분 이전에 공간을 먼저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차주영 외(2010)는 해안경관유형을 크게 자연생태형, 문화형, 인공형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해안생태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안시가지경관, 산업경관, 어촌경관으로 구분하였다. 김경인 외(2011)의 연구를 토대로 수립된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상의 해안경관유형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경관유형 구분 초기 단계부터 관련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고려하여 경관유형을 구분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해안경관 유형설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최지연 외(2011)는 연안경관 유형을 연안자연경관과 연안인공경관으로 구분하였다. 자연경관을 지형적 요인에 따른 퇴적지형, 침식지형, 기타지형과 생태적 요인에 따른 해안림, 수초대, 산호로 구분하였다. 인공경관은 공간의 범위, 시각적 경관, 인공성, 관리대상 요소라는 기준을 가지고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시, 어촌·어항, 산업, 항만, 해수욕장, 관광레저, 역사문화경관으로 구분하였다.

큰 특징은 자연경관유형과 인공경관유형의 경관관리요소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자연경관의 유형을 지형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고 퇴적지형, 침식지형, 기타지형, 해안림, 수초대, 산호로 세분화하였다. 각 경관유형별 경관 관리요소로 해안선, 조망권, 지형·생태, 건축물·시설물을 제시하였다.

▼ [표 2-3]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 구분

연구자	해안경관유형 구분			
온영태 외, 2002	연안경관유형	관리대상		
	자연경관	해안, 섬 · 육계도, 암벽 · 해식애, 석호, 하천, 구릉지 · 산, 송림, 일출 · 바다풍경		
	정주경관	항구도시 및 주변 배후, 소규모 어촌 · 어항		
	문화경관	역사경관	역사문화 유적지	
		관광지	해수욕장, 횡집거리, 유명관광지	
	교통경관	국도, 지방도, 철도, 교량, 터널 등		
윤상호 외, 2003	구분	유형	세부구분	
	연안	어촌경관	건축물 및 배치, 어촌풍경, 역사 · 문화	
		자연경관	육역, 해역, 기수역	
	수제부	해수욕장 경관	주요시설, 부대시설	
		친수공간 경관	친수공간	
	수변	해안형 도로경관	해안도로, 철로	
		어항경관	어항기능시설, 어업기반시설, 방파제, 횡집거리	
차주영 외, 2010	유형	대상		
	자연생태형	해안생태경관	해안의 주요 지형, 산림, 해변 등 주요 식생현황	
		관광휴양경관	해안에 인접한 관광단지 및 주요 관광지	
	문화형	역사문화경관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근대 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종교시설 등	
		해안시가지경관	해안도시의 주요 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및 도시기반시설 등	
	인공형	산업경관	해안에 인접한 대규모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및 무역항	
		어촌경관	어촌의 주요 경작지,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최지연 외, 2011	구분	경관유형	
자연경관		퇴적지형	간석지(모래, 펄, 자갈해안), 사주, 사취, 석호	
		지형적요인	침식지형	해식애, 파식대
			기타지형	연안구릉지, 단구, 섬, 여
			해안림	초본대, 수목식생대
		생태적요인	수초대	해조류, 해초류
			산호	산호초
인공경관		도시경관, 어촌 · 어항경관, 산업경관, 항만경관, 해수욕장경관, 관광레저경관, 역사문화경관		

연구자	해안경관유형 구분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2011	유형	대상지역
	자연경관	-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공원, 녹지 등이 포함
	생태경관	-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 제7조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등이 포함
	시가지경관	-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밀집한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포함
	산업경관	- 공업, 물류 등의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항만법」 제3조에 의한 무역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포함
	농어촌경관	- 어업, 농업, 등의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며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7조에 의한 취락지구,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연안항,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한 어항구역 등이 포함
	관광휴양경관	- 여가, 휴식을 위하여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전망공간, 편익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한 관광특구 및 관광지 등이 포함
	역사문화경관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또는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 포함
	유형	자원
	자연경관	주요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경관계획 수립지침, 2015	산림경관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농산어촌경관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시가지경관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 상업업무경관 · 공업경관 자원 등
	도시기반시설경관	도로, 철도 등
	역사문화경관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안경관을 유형화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형화 기준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이처럼 경관 유형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관요소, 경관자원,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를 종합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4]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 구분 기준

구분	방식	경관유형 사례
자연 vs 인공	- 자연적인가 인공적인가로 구분 - 경관유형의 대분류로 활용	- 자연경관, 인공경관, 생태경관, 산림경관 등
문화	- 문화적 속성 포함 여부 - 인공과 문화를 구분 - 문화경관이 인공경관의 하위개념화 되거나 인공경관이 문화경관의 하위개념으로 되기도 함	- 역사문화경관, 문화경관, 역사경관 등
경관요소의 특성	- 경관요소 혹은 자원의 특성으로 구분 - 경관요소나 공간에 '경관'을 붙여 경관유형화	- 해수욕장경관, 항만경관, 여항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 등
토지이용 특성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구분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기반한 경관유형화로 법제와 관련	- 시가지경관, 농어촌경관, 산업경관 등

▼ [표 2-5] 선행연구의 해안경관유형과 경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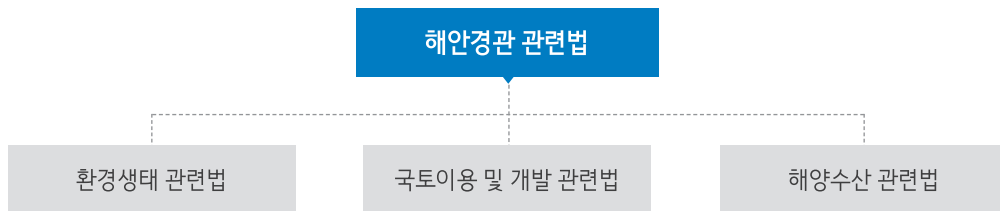
	대분류	세분류
경관 유형	자연(생태)	자연, 산림, 생태
	인공(문화)	어촌, 시가지, 정주, 도시기반시설, 역사문화, 관광휴양, 산업, 여항 · 항만, 해수욕장, 교통 등
경관 요소	자연적인 경관요소	- 해안: 모래해안(사빈), 자갈해안, 암석해안 - 갯벌(간석지):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염습지 등 - 산림 및 식생: 산, 구릉지, 해안림, 송림, 방풍림 등 - 지형적 요소: 해안사구, 사주(砂洲), 해식애(해식절벽), 파식대(해식대지), 육계도, 섬, 하천 등
	인공적인 경관요소	- 건축물: 주거, 상업 · 업무시설, 창고, 임시건물 등 -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주차장 등 - 해안기반시설: 항만, 항구, 여항, 포구, 방조제, 방파제, 등대, 부교, 접안시설, 부두 등 - 산업(농어업)시설: 발전소, 산업단지시설, 여항기능시설, 어업기반시설, 간척지, 농경지, 염전 등 - 공공공간: 광장, 공원, 녹지, 해수욕장, 친수공간 등 - 공공시설물: 전신주, 가로등, 펜스 등 - 공공매체: 옥외광고물, 현수막, 정보매체(게시판, 이정표 등) 등

3. 해안경관 관련 법제 현황

경관법은 경관관리를 위한 법으로는 가장 명확하고 종합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없고 심의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가 유일하다. 경관 구성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이 대표적이다.

경관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 관련법, 반대로 개발을 억제하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전 관련법들도 경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경관법이나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직접적인 규제수단 부재와 둘째, 관련법·계획·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경관관리 수단이 관련법규 및 계획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해안경관변화나 관리에 영향을 주는 법규들을 검토하였다. 해안경관 관련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그림 2-2] 해안경관 관련법

3.1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법 (도시계획, 경관, 건축)

경관관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사업과 같이 경관계획 실행이 기반이 되나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지구·구역), 건축법(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의 영향이 크다. 어촌지역 경관관리의 경우 농어촌 정비종합계획의 영역이기도 하다. 해안지역 경관관리 영향을 주는 법정계획과 지역·지구·구역은 아래표와 같다.

▼ [표 2-6]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법

법규	목적 및 법정계획	지역·지구·구역 (경관관리 수단)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지구, 미관지구 - 경관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위한계획수립및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군 기본계획 내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건축구역 - 특별가로구역 - 지역·지구의 건축제한 - 건축허가, 건축심의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 지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 ▶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정비구역 - 농어촌경관관리계획 - 농어촌정비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협약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 정비사업

3.2 해양수산 관련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법이다. 해안지역의 어촌, 항만, 어항,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다.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를 법정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어촌의 자연환경, 경관, 해안의 보전관리)이 있다.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해안지역 개발과 관련이 깊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해양경관관리 구역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 [표 2-7] 해양수산 관련법

법규	목적 및 계획	지역·지구·구역(경관관리 수단)
해양수산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규정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지자체 책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계획 	- 어촌의 자연환경·경관, 해안의 보전·관리 및 수산생태계보전(지자체 책무)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역 및 개발사업 - 해양관광진흥지구
해양경관관리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훈령 49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적용 - 경관법에 따라 해안권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경관 관리범위 - 해안선 보호구역 - 해안중점관리구역 - 해안연접관리구역
항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항만기본계획 ▶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 - 항만재개발사업
어촌어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어촌종합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구역 - 어항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법규	목적 및 계획	지역·지구·구역(경관관리 수단)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어촌특화발전계획	- 어촌특화사업 - 어촌사회협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마리나 항만구역 -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	-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공유수면 관리

3.3 환경생태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생태 분야 최상위 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이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경분야 별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이다.

해안지역의 환경생태분야 주요 법으로는 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연안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연안계획이 해안경관관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 [표 2-8] 환경생태 관련법

법규	목적 및 법정계획	지역·지구·구역(경관관리 수단)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환경보전계획(지자체)	-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유보지역 - 생태자연도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경관심의

법규	목적 및 법정계획	지역·지구·구역(경관관리 수단)
연안관리법	-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지역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용도해역 - 연안해역기능구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정비사업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자연해안복원사업)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 공원기본계획 ▶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마을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 해양생태도 - 해양보호구역 - 시·도해양보호구역 - 바닷가휴식지 지정관리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 ▶ 해양환경종합계획 ▶ 환경관리기본계획	- 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습지보전법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습지보전기본계획 / 습지보전계획	- 연안습지 - 습지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 문화재기본계획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 야생동물보호 기본계획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III. 충남 해안현황 및 경관특성

충남 해안현황은 자연현황,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해안경관 특성은 경관요소별 분석, 경관저해요인, 7개 시·군별 경관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경관요소별 분석은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로 구분하였다.

기존 해안경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에 기반하여 충남해안 지역의 특징적인 경관요소 중심으로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해안경관 답사과정에서 부각되는 경관저해요인을 자연경관요소 훼손(인공화), 건축물, 송전탑, 가설건축물, 조형성과 색채, 어구 및 쓰레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7개 시·군 해안지역의 경관 특성을 자연해안의 인공화 비율, 토지이용, 주요 경관자원의 분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도 및 시·군 경관계획의 경관자원 도출을 위한 기본적인 경관조사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시·군의 해안경관요소를 기존 연구를 토대로 큰 틀에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표 3-1] 충남 해안지역 주요 경관요소

분류	경관요소
자연경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모래해안(사빈), 자갈해안, 암석해안 - 갯벌(간석지):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염습지 등 - 산림 및 식생: 산, 구릉지, 해안림, 송림, 방풍림 등 - 지형적 요소: 해안사구, 사주(砂洲), 해식애(해식절벽), 파식대(해식대지), 육계도, 섬, 하천 등
인공경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주거, 상업·업무시설, 창고, 임시건물 등 -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주차장 등 - 해안기반시설: 항만, 항구, 어항, 포구, 방조제, 방파제, 등대, 부교, 접안시설, 부두 등 - 산업(농어업)시설: 발전소, 산업단지시설, 어항기능시설, 어업기반시설, 간척지, 농경지, 염전 등 - 공공공간: 광장, 공원, 녹지, 해수욕장, 친수공간 등 - 공공시설물: 전신주, 가로등, 펜스 등 - 공공매체: 옥외광고물(가로간판, 지주간판, 현수막 등), 정보매체(게시판, 이정표 등) 등
경관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요소의 훼손 (인공화) - 건축물 (입지, 규모, 높이, 형태) - 송전탑 - 어촌주거 (빈집) -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 과도한 조형성과 색채 - 어구 및 쓰레기

1. 자연현황

1.1 연안현황 및 해안선

충남은 갯벌 357km², 해안사구 42개소(전국의 31%), 해안방재림 4.2km²(전국의 24.6%)가 있는 우리나라 해안의 자연특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심이 얕아 염전과 양식업이 발달하였으나 대규모 간척사업, 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건설에 따라 연안생태계 변화와 수산동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구포락, 해빈 후퇴 등 연안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안침식의 원인이 주변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면 충남은 어업인구 노령화와 감소로 인한 수산업 활동 침체, 연안개발로 인한 오염부하 확대 예상, 해양쓰레기 및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및 자연경관 훼손, 연안·해양보호구역(태안해안국립공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내 불만 및 이해 상충 발생, 해빈·해안사구의 모래유실과 금강하구 해안 침·퇴적 현상 지속(안흥, 근흥 방파제 침하 현상, 해수욕장 모래 유실, 안면도 지역 해안선 후퇴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수한 연안자원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의 이해 상충이 지속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충남의 해안선 길이는 1,241km로 육지부 해안선 길이는 808km, 도서부 해안선은 433km이다. 도서부는 86%가 자연해안선인데 비해 육지부는 해안선의 51%가 인공해안선이다.

육지부 인공해안선의 길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안선이 복잡한 충남은 과거부터 간척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아산만 방조제, 삽교 방조제, 대호방조제 서산 A,B지구 방조제 조성으로 해안선이 대폭 인공화, 단순화 되었다.

육지부 해안선 808km 중 태안군이 419km로 육지부 해안선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긴 서산시 121km이다. 당진, 서천, 보령이 육지부 해안선은 80여 km 내외로 비슷하고, 홍성군 19.56km, 아산시 7.71km이다.

도서부 해안선은 보령시가 가장 길어 196km이고 태안군이 140km이다. 2014년 기준 268개의 유·무인도서들이 분포(유인도서 33개, 무인도서 235개)하고 있다. 태안군이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부 해안선 길이는 보령시가 가장 길다. (충청남도, 2015a, p.175)



자료: <http://coast.mof.go.kr/coastmap/map/map.jsp> 편집

▲ [그림 3-1] 충남의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현황

▼ [표 3-2] 충남의 해안선

구분	총연장	육지부			도서부		
		육지부 해안선 총연장 (비율)	자연해안선 (비율)	인공해안선 (비율)	도서부 해안선 총연장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충남	1,242.03	808.08 (65.06%)	395.67 (48.96%)	412.41 (51.04%)	433.95	373.31	60.64
보령시	272.99	77.28 (28.31%)	31.47 (40.72%)	45.81 (59.28%)	195.71	162.14	33.57
아산시	7.71	7.71 (100%)	-	7.71 (100%)	-	-	-
서산시	148.99	120.94 (73.80%)	50.34 (41.62%)	70.6 (58.38%)	28.05	24.94	3.11
당진시	115.09	84.94 (73.80%)	7.45 (8.77%)	77.49 (91.23%)	30.15	26.48	3.67
서천군	111.48	78.54 (70.45%)	37.97 (48.34%)	40.57 (51.66%)	32.94	17.11	15.83
홍성군	26.43	19.56 (74.01%)	2.2 (11.25%)	17.36 (88.75%)	6.87	4.5	2.37
태안군	559.34	419.11 (74.93%)	266.24 (63.53%)	152.87 (36.47%)	140.23	138.14	2.09

자료 : 충청남도, 2016b, p.413 자료 재편집

1.2 연안습지(갯벌)

갯벌의 단위면적당 생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해당한다. 충남이 보유한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조 2,676억에 이른다.(충청남도, 2015a, p.30)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 제고에 따라, 세계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생태보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에는 내륙습지인 두웅습지³⁾와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충남은 넓은 갯벌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갯벌 면적은 2015년 기준 357km²이다. 태안군이 139.3km²로 가장 넓고 서천군(70.9km²), 서산시(67.2km²)

3) 두웅습지는 12과 157종 207종의 식물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5과 9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주요 보호종으로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희소종인 표범장지뱀 산란지 및 붉은배새매가 관찰되고 있다. (환경부, 2012,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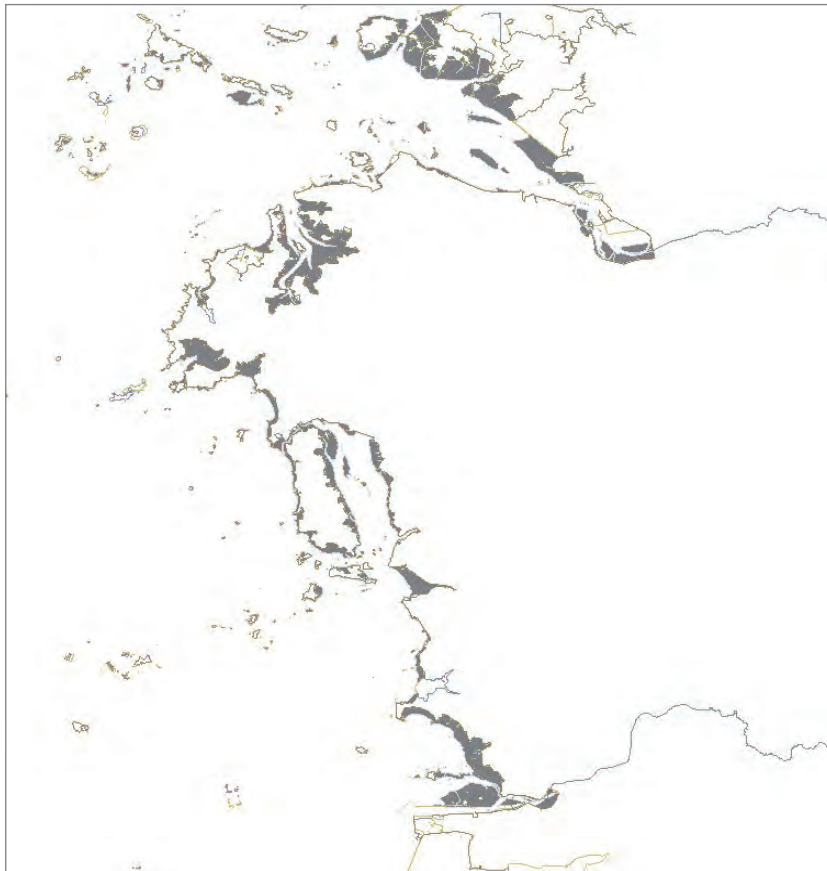
등의 순이다. 갯벌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충남의 갯벌 규모는 1987년 434.2km²에서 2013년 357km²로 까지 약 17.8%가 감소하였다.(충청남도, 2015a, p.30)

충남의 대규모 갯벌은 가로림만 갯벌(서산), 근흥-남면갯벌, 안면갯벌(태안), 비안-장항갯벌(서산) 서산갯벌(당진), 아산만갯벌(아산, 당진), 오천갯벌(보령), 웅천갯벌(보령), 원북갯벌(서산), 원산도갯벌(보령) 등이 있다. (자료:http://www.coast.kr.)

▼ [표 3-3] 충남의 갯벌 면적

시군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합계
면적(km ²)	33.1	7.6	67.2	24.6	70.9	14.3	139.3	357

자료 : 해양수산부, 2016a, p.59



자료: <http://webgis.ecosea.go.kr/>

▲ [그림 3-2] 충남의 갯벌

1.3 해빈, 해안사구, 해수욕장 현황

충남의 해빈은 총 55개소로 모래로 구성된 해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빈이란 해안선을 따라서 해파(Sea Wave)와 연안류(Longshore Current)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퇴적 지대를 말한다.⁴⁾ 일부 해빈에는 모래와 자갈, 패각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해빈 중 해안에 사구가 발달한 지역을 해안사구라 하는데 해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파랑으로 밀려 올려지고, 바람(탁월풍)의 작용을 받아 모래가 낮은 구름 모양으로 쌓여서 형성되는 지형을 해안사구라 한다.

충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안사구(42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태안군에 30개소, 보령시에 4개소, 서천군에 8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충청남도, 2015b, p.188) 충남의 해안사구 중 신두리사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빈과 해안사구는 지형적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해빈, 해안사구 중 해수욕이 가능한 공간을 해수욕장으로 일컫는다.

충남에는 도내 총 35개소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다.⁵⁾ 2015년 일부 해수욕장 지정 해제로 35개소가 있으며 미지정 해수욕장이 16개소이다. 태안군 30개소, 보령시 2개소, 당진시 2개소, 서천군 1개소이다. (김경태 외, 2016, p.87). 지정 해수욕장은 태안군에 30개소로 가장 많고 미지정 해수욕장 16개소는 모두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다. 4개소는 육지지역에 12개소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표 3-4] 충남의 해수욕장 현황

시군	지정	미지정	해수욕장
보령시	2	16	지정 : 대천, 무창포 미지정 : 원산도, 오봉산, 사창, 저두, 호도, 명덕, 거널너머, 진너머, 밤섬, 당너머, 명장섬, 당산, 독산, 장안, 염성, 용두
당진시	2		왜목마을, 난지섬
서천군	1		춘장대
태안군	30		기지포, 꽃지, 밧개, 방포, 백사장, 삼봉, 샛별, 안면, 두여, 바람아래, 장삼포, 곰섬, 달산포, 마검포, 몽산포, 청포대, 갈음이, 연포, 구름포, 만리포, 방주굴, 어은돌, 의항, 천리포, 파도리, 구례포, 신두리, 학암포, 꾸지나무굴
합계	35	16	

자료 : 김경태 외, 2016, pp.87-89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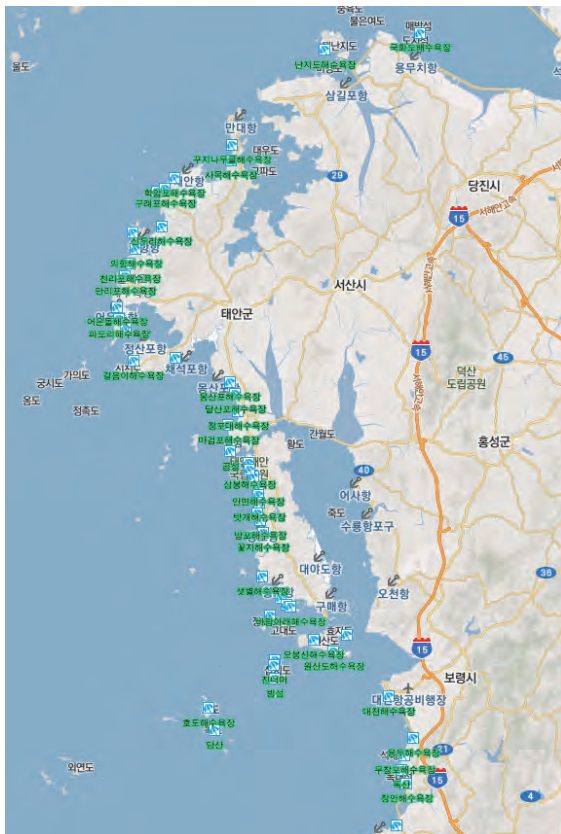
4) Naver 해양용어사전 부분 발췌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써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태안해안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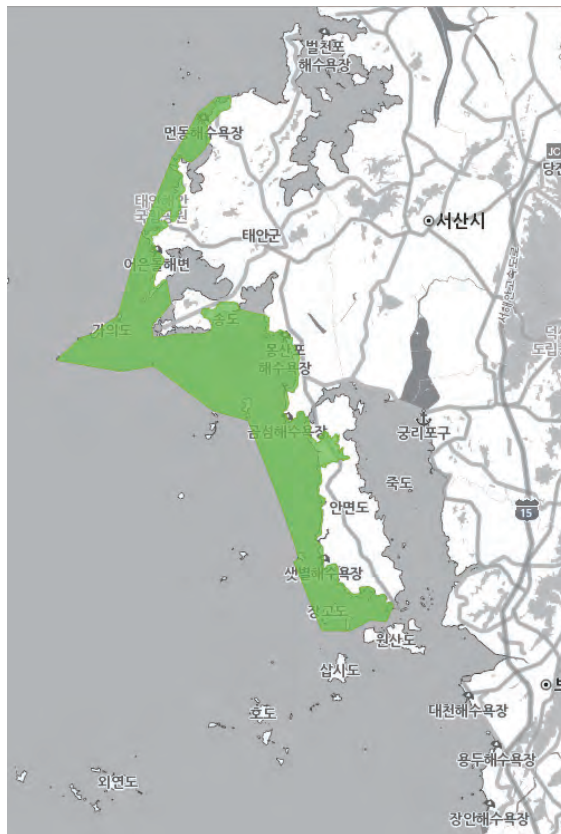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아우른 230km의 해안선에 27개의 해변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377.019km²이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갯벌, 사구, 기암괴석, 섬들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국유지가 94.1%, 공유지가 2.1%, 사유지가 3.8%이며 공원자연환경지구가 99.9%, 공원마을지구가 0.1%로 구성되어 있다.⁶⁾



자료 : <http://coast.mof.go.kr>

▲ [그림 3-3] 충남의 해수욕장 분포



자료 : <http://map.wworl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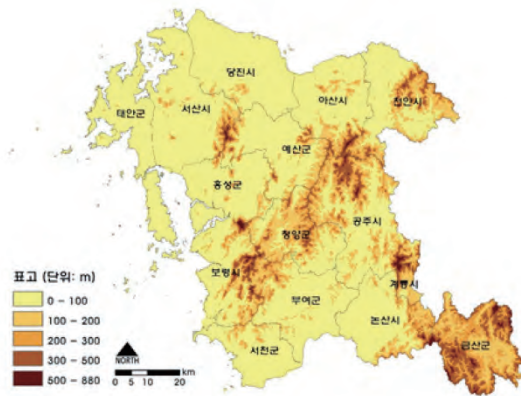
▲ [그림 3-4] 태안해안국립공원

6)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된다.

1.5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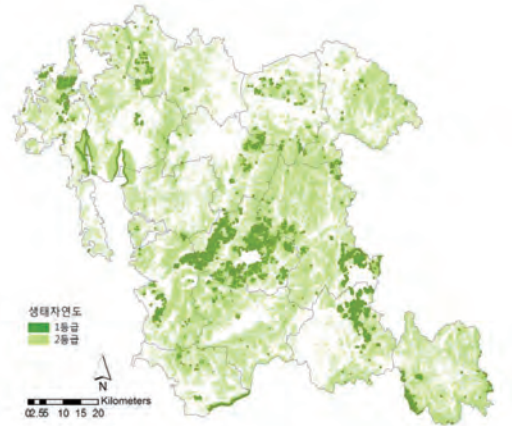
충남은 북동에서 남서,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표고와 경사가 높고, 표고 100m 이하 지역이 전체면적의 65.7%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지역은 대부분 표고 100m이하의 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 전체 면적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약 3%, 2등급지는 약 38.1%를 차지하고 있다. 가로림만의 남서측 태안지역과 부남호, 간월호 일대가 비교적 높은 생태자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안지역 7개 시·군의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충청남도, 2015b, p.160) 당진시 5.20km²(2.1%), 보령시 18.36(7.4%), 서산시 8.27(3.3%), 서천군 8.98(3.6%), 아산시 8.55(3.5%), 태안군 20.93(8.4%), 홍성군 3.45(1.4%). 태안군과 보령시가 높게 나타난다.



자료 : 충청남도, 2015b, p.36

▲ [그림 3-5] 충남 표고분석도



자료 : 충청남도, 2015b,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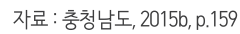
▲ [그림 3-6] 충남 생태자연도

2012년 충남 생태네트워크 구축 시 연안생태축이 제시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중요 해안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중요 해안림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사방식에 따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⁷⁾ 가로림만 일대와 태안해안국립공원, 천수만 일대에 중요 해안림이 분포하고 있다. 비오톱 1등급(산림)의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중요 해안림을 결정하는 방식은 최소지표법(좌)와 점수화법(우)이 있다.



▲ [그림 3-7] 충남의 해안림



▲ [그림 3-8] 충남 비오톱 1등급(산림) 분포도

2. 자연경관요소

2.1 해안(모래, 자갈, 암석)

대표적인 자연경관요소는 해안이다. 자연해안은 크게 모래해안, 자갈해안, 암석해안으로 구분되는데 모래해안은 해안선 길이, 수심, 수온 등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군의 자연해안선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모래, 자갈, 암석으로 구성된 자연해안은 인접하거나 후면에 위치한 해안림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해안의 보존이 충남 해안 경관관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모래해안(마검포 해변)



모래해안(구름포 해변)



모래 + 자갈해안



자갈 해안(벌천포 해변)



모래 + 암석해안



암석해안

2.2 갯벌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지역으로 거론 될 만큼 갯벌 면적이 넓다. 방조제 건설로 많은 갯벌이 훼손되었으나 가로림만, 천수만, 서천, 아산만 일대에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갯벌은 어촌지역의 생산공간이자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갯벌, 해안림, 소규모 어항과 포구로 형성되는 가로림만과 천수만 지역의 경관은 충남의 해안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갯벌은 탁 트인 조망경관을 제공하고 있어 충남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아산만갯벌



가로림만갯벌(웅도일원)



도성리포구와 갯벌



중왕리 갯벌과 포구



천수만 갯벌



서천 송림갯벌

2.3 해안림(송림)

해안림은 모래해안,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모래해안에 인접하여 발달한 송림은 충남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안림은 연안 침식을 방지하고 사구형성에 도움을 주며 해안지역의 염도 높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안림은 수종에 따라 다양한 경관 특성을 보여주는데 태안 방포항의 모감주나무 군락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용무치항 인근 해안림



꾸지나무골 해변의 해안림



연포선착장 인근 해안림



원안해변의 송림



몽산포 해변의 송림



마량리 동백나무숲

2.4 지형적 요소

해안지역은 해안림, 모래해안 외에도 다양한 지형적 요소가 변화, 생성하고 있다. 해수면, 지형학적 과정(침식, 퇴적 등),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해안지역경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해안의 지형적 요소들로는 퇴적으로 형성되는 사구 이외에도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절벽(해식애), 해안의 침식대지(파식대), 육계도(조수간만으로 연결되는 소규모 섬) 등이 대표적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두웅습지 (연안습지)



할미할아버바위(육계도)



파식대+해식애+해안림(구름포 해변)



파식대(해안가 침식 대지)



해식애(해안절벽)

3.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

3.1 7개 시·군 해안지역 용도지역지구 현황

충남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0.31%, 비도시지역 89.69%로 구성되어있다. 해안 7개 시·군은 도시지역 11.03%, 비도시지역 88.97%로 도시지역 비율이 충남 평균보다 약간 높다.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은 도시지역 비율이 충남 평균보다 낮고, 당진시는 유사하다. 아산시와 서산시가 높게 나타하는데 서산시는 24.92%가 도시지역이다.

▼ [표 3-5] 해안지역 7개 시·군 용도지역 현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계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충남	903,410	10.31	7,858,987	89.69	8,762,397
해안7개	487,993	11.03	3,935,733	88.97	4,423,726
보령시	35,359	5.88	565,981	94.12	601,340
아산시	83,015	15.31	459,289	84.69	542,304
서산시	200,254	24.92	603,267	75.08	803,521
당진시	75,098	10.59	633,909	89.41	709,007
서천군	22,731	6.33	336,101	93.67	358,832
홍성군	36,073	7.62	437,317	92.38	473,390
태안군	35,463	3.79	899,869	96.21	935,332

자료: 제56회(2016년) 충남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충남 해안지역 7개 시·군은 주거지역 1.47%, 상업지역 0.19%, 공업지역 2.06%, 녹지지역 6.13%, 관리지역 34.90%, 농림지역 41.02%, 자연환경보전지역 13.0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 전체 평균에 비해 농림지역이 낮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높다. 아산시는 주거지역이 서산시, 당진시는 공업지역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산시는 녹지지역 13.33%로 도시지역의 50% 정도가 녹지지역이다.

충남 전체 평균에 비해 당진시, 홍성군은 관리지역 비율이 높고, 보령시, 서천군은 농림지역의 비율이 높다. 태안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의 50.20%이고 서산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6%에 불과하다. 서산시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자연환경보전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시지역 중 용도미지정구역이 6.52%로 높게 나타난다.

▼ [표 3-6] 해안지역 7개 시·군의 도시, 비도시지역 비율

	도시지역(비율(%))					비도시지역(비율(%))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충남	128,377	14,885	114,909	589,217	56,021	3,125,318	4,005,671	727,199	8,762,397
	1.47	0.17	1.31	6.72	0.64	35.67	45.71	8.30	
해안7개	61,308	8,402	91,238	271,024	56,022	1,543,960	1,814,503	576,532	4,423,726
	1.39	0.19	2.06	6.13	1.27	34.90	41.02	13.03	
보령시	4,853	621	9,089	19,161	1,635	191,840	337,372	36,589	601,340
	0.81	0.10	1.51	3.19	0.27	31.90	56.10	6.08	
아산시	17,602	2,477	12,750	50,186	-	199,464	240,235	19,590	542,304
	3.25	0.46	2.35	9.25		36.78	44.30	3.61	
서산시	12,499	1,049	27,210	107,077	52,419	244,265	348,787	10,162	803,521
	1.56	0.13	3.39	13.33	6.52	30.40	43.41	1.26	
당진시	8,701	1,136	33,429	30,377	1,456	323,529	298,954	10,922	709,007
	1.23	0.16	4.71	4.28	0.21	45.63	42.17	1.54	
서천군	4,391	559	3,652	13,711	418	133,716	202,384	-	358,832
	1.22	0.16	1.02	3.82	0.12	37.26	56.40		
홍성군	8,680	911	2,288	24,100	94	220,843	186,727	29,747	473,390
	1.83	0.19	0.48	5.09	0.02	46.65	39.44	6.28	
태안군	4,582	1,649	2,820	26,412	-	230,303	200,044	469,522	935,332
	0.49	0.18	0.30	2.82		24.62	21.39	50.20	



자료 : <http://map.world.kr>
▲ [그림 3-9] 도시지역



자료 : <http://egis.me.go.kr>
▲ [그림 3-10] 관리지역



자료 : <http://map.world.kr>
▲ [그림 3-11] 자연환경보호지역

3.2 법정보호구역 현황

▼ [표 3-7] 충남 해안지역 보호구역 현황

유형	명칭	위치 및 보호종	면적(k㎡)
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326.6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176.9
수산자원보호구역	아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아산시	
	삼교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아산시, 당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소항사구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독산리	0.121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신두리사구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64
	신두리사구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 군락	태안군 안면도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군 마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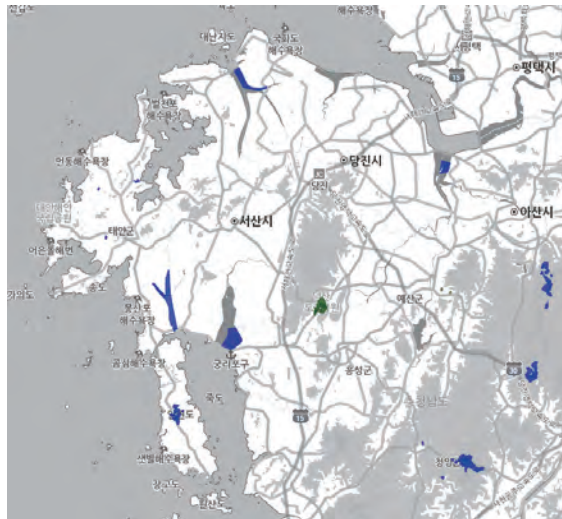
유형	명칭	위치 및 보호종	면적(km ²)
습지보호지역	두웅습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7
	서천갯벌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15.3
야생생물보호구역	아산시	- 인주면 문방리 801외 1개소(삽교호) - 큰고니, 큰기러기	3.934
	서산시	- 부석면 간월도리 외 2개소(간월호) - 청둥오리 등 58종	32.39
	당진시	- 석문면 초락도리 2361번지(대호지)	3.92
	홍성군	- 갈산면 기산리 960(간월호) - 청둥오리 등	7.02
	태안군	- 안면읍 승언리 산 31-1 외 6개소(안면자연휴양림 일대) - 갯이갈매기 등 6종	10.01

자료: 충청남도, 2015b, pp.137-138, p.188 정리 및 국토해양부, 2011, p.144 정리



자료 : <http://map.world.kr>

▲ [그림 3-12] 수산자원보호구역



자료 : <http://map.world.kr>

▲ [그림 3-13] 충남 해안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2016-105호
▲ [그림 3-14] 가로림만해양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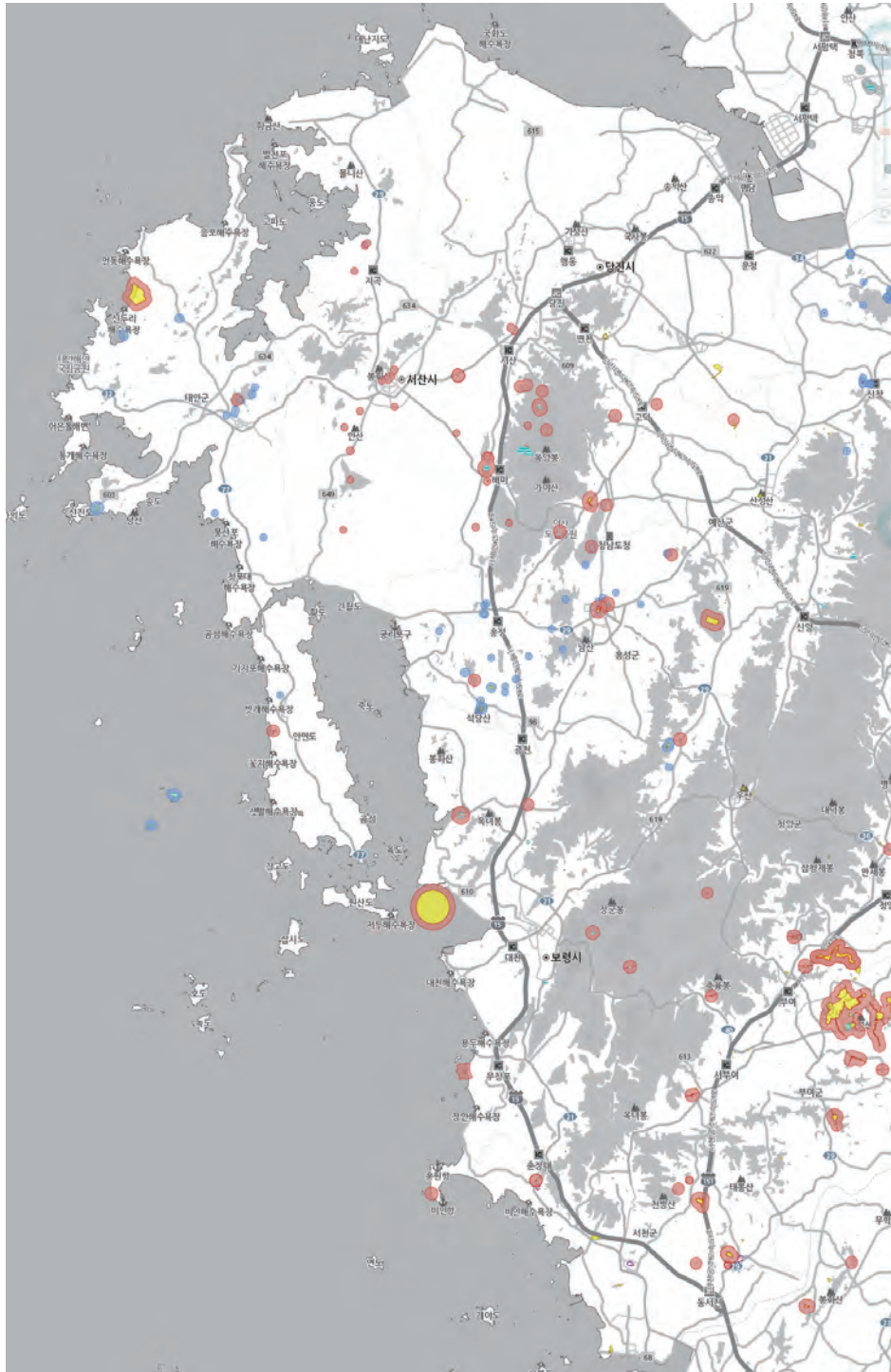
자료 : <http://map.wworld.kr>
▲ [그림 3-15] 생태경관보전지역(소항사구)



자료 : <http://map.wworld.kr> 편집
▲ [그림 3-16] 습지보호지역(서천갯벌)



자료 : <http://map.wworld.kr> 편집
▲ [그림 3-17] 신두리사구와 두웅습지



▲ [그림 3-18] 충남 해안지역 문화재보호구역

3.3 항만, 어항 현황

충남에는 7개의 항만과 59개의 어항이 있다. 5개의 무역항, 2개의 연안항, 59개의 어항이 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된다.⁸⁾ 대산항은 석유화학,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 항만으로 활용되고, 태안항과 보령항은 화력발전소 전용부두로 사용되고 있다.

충남 어항은 총 59개소로 전국대비 2.6% 수준이다.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된다. 충남의 어항은 국가어항 8개, 지방어항 29개, 어촌정주어항 22개로 전국 2,286개소 대비 2.6% 수준이다. 어항은 태안군이 28개소로 가장 많고 보령시, 서산시 순이다.(충청남도, 2016a, p.23)

▼ [표 3-8] 충남의 항만, 어항 현황

	항만				어항			
	국가 무역항	지방 무역항	연안항	합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합계
보령시		보령항	대천항	2	2	8	2	12
서산시	대산항			1	1	2	5	8
당진시	평택당진항			1	1	1	2	4
서천군	장항항		비인항	2	1	3		4
홍성군					1	2		3
태안군		태안항		1	2	13	13	28
합계	3	2	2	7	8	29	22	59

자료: 충청남도, 2015a; 충청남도, 2016a; 토대로 작성

▼ [표 3-9] 충남의 어항 현황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보령시	오천항, 외연도	무창포, 녹도, 호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원산도	죽도, 학성
서산시	삼길포	간월도, 구도	웅도, 호리, 고파도, 도성, 우도
당진시	장고항	난지도	왜목, 도비도
서천군	홍원항	송석, 월하성, 다사	
홍성군	남당항	어사, 궁리	
태안군	안흥항, 모항항	백사장, 몽산포, 학암포, 천리포, 만리포, 여은돌, 가의도, 채석포, 방포, 영목, 마검포, 통개, 만대	황도, 황포, 대야도, 정산포, 탄갯포, 개목, 연포, 의점포, 가경주, 고남, 당암, 청산, 황골

자료: 충청남도, 2016a, p.24

8) 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고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3.4 방조제 (담수호, 하구호)

방조제는 농업과 산업단지의 용지 확보를 위해 갯벌과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데 규모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미지정방조제로 구분된다. 방조제를 통해 담수호가 조성되는데 삽교호, 간월호, 대호호, 부남호, 석문호, 부사호, 이원호, 남포호, 홍성호, 보령호 9개의 담수호가 있다.

충남의 방조제수는 총 279개로(국가 21, 지방 249, 미지정 9)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충청남도, 2016b, p.6). 해안의 대규모 방조제들은 대부분 국가관리방조제에 포함된다.

▼ [표 3-10] 충남의 방조제 현황

	국가관리	지방관리	미지정	합계
보령시	4(대천,금오,남포,보령)	63	8	75
아산시	1(인주)			1
서산시	4(대호,어송,중왕,서산A지구)	49	1	54
당진시	4(삽교천,해바라기,송산,석문)	5		9
서천군	2(옥남,종천)	6		8
홍성군	1(홍성)	10		11
태안군	5(승언,미포,근흥,곰섬,이원)	116		121
합계	21	249	9	279

자료: 충청남도, 2016b, pp.16-19

3.5 산업단지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5개소, 지방산업단지 46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90개소가 있다.(충청남도, 2014a, p.20) 국가산업단지 5개소는 모두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령시 1개소, 서산시 1개소, 당진시 2개소, 서천군 1개소이다. 지방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 밀집되어 있다.



자료 : <http://map.vworld.kr/map/maps.do> 내용 편집

▲ [그림 3-19] 충남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4. 인공경관요소

4.1 건축물

인공적인 혹은 문화적인 경관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이다. 어촌마을의 주거건축, 해수욕장·관광지 주변의 상업·숙박시설, 항구·어항의 수산업무시설(시장, 직판장, 창고 등)과 해운시설(터미널), 공공건축물(해양경찰서, 어촌복지회관, 화장실 등) 등이 있다. 또한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마을이나 해안인접 농경지에서는 농촌마을의 경관요소도 나타난다.

충남은 대도시에 없는 발전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에 조성된 많은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충남 해안지역 건축물의 다양성은 도시지역 못지않으며 지역 차원에서 이 대규모 건축물(기반시설) 경관요소들을 제어할 수 없는 것도 특징이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문제는 입지, 배치, 규모, 형태, 높이, 색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건축물 디자인간의 비조화(배타성) 외에도 자연경관요소와 건축물의 이질성이 시각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해안지역 자연경관요소의 훼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



어촌 주거지역



어항 내 상업·숙박시설



해수욕장 상업시설



수산물시장(회센터)



수산업무시설(위판장)



수산업무시설(창고)



관광지 숙박시설



해수욕장 숙박시설(펜션)



여객선 터미널



공공건축물(항구 공공화장실)



공공건축물(어촌복지회관)



공장건축물(산업단지)

4.2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량 등)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도 해안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교량의 경우 조망경관을 제공하는 조망점이자 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도로나 자전거도로들은 개방감 높은 도로경관을 제공하고 있어 기반시설이자 경관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나 자연해안을 인공해안으로 바꾸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안흥나래교



드르니항 인도교



방포항 인도교



홍성군 해안도로



천수만 해안도로



해안변 자전거도로

4.3 해안기반시설 (부두, 선착장, 방파제, 등대 등)

도로, 교량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외에 해안지역에만 조성되는 기반시설이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항만, 항구, 어항, 포구들이며 이 공간들에 설치되는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해당된다. 부두, 선착장, 방파제, 등대 등 항구나 어항에 조성되는 인공적인 구조물들과 해안의 토목구조물들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해안경관의 기본구조를 결정하고 시각적 자극이 강한 요소들이나 기능적,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어항의 부두(삼길포항)



부두(접안시설)



접안시설



부교(접안시설)



방파제



부두 내 도로 및 주차장



방파제와 접안시설



방파제에 설치된 등대



방파제에 설치된 등대



접안시설에 설치된 가설등대



해안옹벽 및 석축



해안지역 옹벽



항만 하역시설(당진항)



하역시설(중리포구)

4.4 방조제

충남 해안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인공경관요소로 방조제를 들 수 있다. 충남의 경우 대형 방조제를 통해 총 9개의 담수호를 조성하였다. 농업과 산업단지의 용지 확보를 위해 갯벌과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방조제들이 많다. 방조제는 일반적으로 제방과 배수갑문으로 구성되는데 방조제의 배수갑문은 시각적으로 인지성이 높은 구조물이다. 방조제 제방 측면에 해안도로가 형성되는데 방조제 해안도로의 도로경관은 담수호나 간척지 방향으로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호 배수갑문과 도로



삽교호 방조제



석문방조제



서산A 방조제와 천수만갯벌



이원방조제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4.5 발전소와 산업단지

충남 해안지역의 대규모 인공경관요소로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전력 공급을 위해 조성된 당진, 태안, 보령 지역의 발전소와 발전소 인근의 산업단지들은 충남 해안의 산업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도로에서 보이는 대형의 공장건축물들과 발전소들은 해안, 방조제, 간척지(농경지)와 함께 해안지역의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지자체(시·군) 차원의 경관관리 수단이 없다.



태안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내 도로와 공장



아산국가산업단지



대죽일반산업단지



현대제철

4.6 농경지 및 염전

해안지역의 농경지와 염전도 중요한 경관요소이다.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일대의 농경지들은 갯벌, 해안림과 함께 농업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충남 해안의 자연경관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염전도 농경지와 함께 충남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폐염전은 생태복원대상지로서 논의되고 있다.



아산호와 주변 농경지



가로림만 농경지



갯벌과 논(태안)



염전



통포염전



염전(만대항 인근)

4.7 공공공간 (수변공원, 광장, 친수공간(해수욕장) 등)

해안지역의 인공적인 경관요소로 공원, 광장, 산책로, 전망대,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들 수 있다. 시·군의 다양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이 공간들은 관광, 휴게,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연 해안을 인공적인 해안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래해안(해빈)을 해수욕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친수형 공공공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원



산책로



전망대



자전거도로



보행자데크



해수욕장

4.8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또한 해안지역의 주요 경관요소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공간이나 필요한 장소에 개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가로등, 블라드와 같은 교통시설부터 벤치, 쉼터, 파고라와 같은 편의시설, 각종 제어함 관련 공급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다. 독립적인 사업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어 공간적, 시각적으로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벤치, 파고라



가로등



버스정류장



안전 및 공급시설



위생시설



방송통신 및 안내시설

4.9 공공매체 (옥외광고 및 정보매체)

옥외광고물과 다양한 정보매체 또한 해안지역에서 시각적으로 인지성이 높은 경관요소이다. 옥외광고물의 문제는 육지와 해안지역 모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다양한 공공정보매체(안내판, 게시문 등)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설치장소와 방식, 매체의 크기와 색채 등이 모두 달라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공공정보매체의 인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공공정보매체와 옥외광고물



해안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다양한 공공정보매체



지자체 관광안내도



공공공간 안내게이트

5. 경관저해요인

해안지역 답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경관저해요인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경관의 질과 선호도 평가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향후 도 및 시, 군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5.1 자연요소 훼손(인공화)

답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해안림(해안지역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다. 해안림의 훼손은 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구역)과 산지·산림 관리방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형요소의 훼손, 자연해안의 인공화 및 해안지역 스카이라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해안림안의 주택



해안경사지의 숙박시설



구릉지위의 주택



해안림 절토 옹벽



해안절벽에 위치한 숙박시설



해안사구지역 내 판매시설

5.2 건축물 (입지, 규모, 높이, 형태)

해안림 훼손과 더불어 건축물도 경관저해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 방식은 다양한데 해안림 훼손과 연계된 입지의 문제 외에도 건축물의 규모, 높이(층수), 형태, 재료, 색채 등도 관련되어 있다.

건축물과 자연경관요소, 건축물과 건축물간의 부조화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건축 모두 형태와 색채를 통해 장소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갯벌지역 앞의 아파트



건축높이(층수)의 부조화



모래해안에 접한 건축물



숙박시설(모텔)



공공건축물(화장실)



공공건축물(화장실)

5.3 송전탑

충남 해안에 위치한 발전소를 기점으로 대형 송전탑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송전탑은 농경지, 해안지역, 도로 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자연경관요소와 강한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송전탑의 환경과 경관저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특별한 경관관리 수단이 없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전탑 인근지역, 도·시·군 주요 경관자원 인근지역이나 조망점 등에 한해서라도 경관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농경지와 송전탑



해안지역 송전탑



발전소와 송전탑



경관자원 주변 송전탑

5.4 어촌 주거(빈집)

어촌지역의 주거건축물 군집은 인접한 포구, 선착장, 해안도로, 어업시설 등과 더불어 해안 주거경관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어촌주거지역 역시 농촌과 유사하게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지붕 색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관관리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어촌지역 역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5.5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해안지역에서 가장 부각되는 경관저해요소로 가설건축물을 지적할 수 있다. 주로 소규모 어항, 선착장, 해변 등에 있는 소규모 식당, 창고, 판매시설 등인데 하절기에 임시 사용하는 시설이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경관관리 차원에서 도 및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5.6 과도한 조형성과 색채

해안지역에는 다양한 구조물, 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가 조성되고 설치된다. 이와 같은 인공적인 경관요소간의 디자인 조화성이 확보 될 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다. 디자인 부조화의 문제는 위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등에서 나타나는 데 건축물과 시설물 조성사업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특히 과도한 조형성과 색채로 개별 시설물의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경관요소간의 조화성이 저하되고 있다.



5.7 어구 및 쓰레기

해안지역의 어구 및 쓰레기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어촌지역의 여건 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쓰레기 적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공간제공과 유지관리, 차폐시설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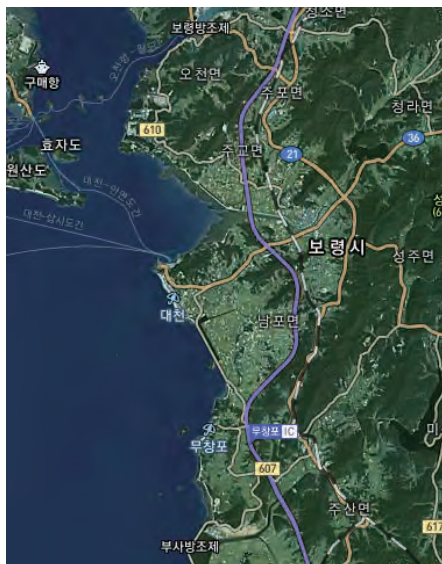
6. 시·군 해안경관 특성

6.1 보령시

육지부 해안선은 77.28km로 아산시, 홍성군에 있어 세 번째로 짧은 인공해안선 비율은 59.28%로 세 번째로 높다. 인공해안선 비율이 높은 원인은 보령, 대천, 남포, 부사방조제와 같은 해안지역에 위치한 방조제에 기인한다. 방조제에서 개방감 높은 해안 조망경관을 확보하기 용이하나 보행자의 해안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천 해수욕장(머드축제), 무창포 해수욕장(무창포 바닷길)과 같은 대형해수욕장과 독산, 용두, 장안의 소규모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5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많은 유, 무인도 외에 갯벌, 여항, 소항사구 등 다양한 유형의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⁹⁾

12개의 어항과 대천항, 보령항이 있으며 해안도로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어 해안 조망이 우수하다. 또한 충청수영성, 갈매못성지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이 해안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오천항, 보령호(보령방조제)와 같이 중요 경관자원이 인접하고 있어 복합적인 경관특성을 나타내며 우수한 조망 경관을 만들고 있다.



자료 : 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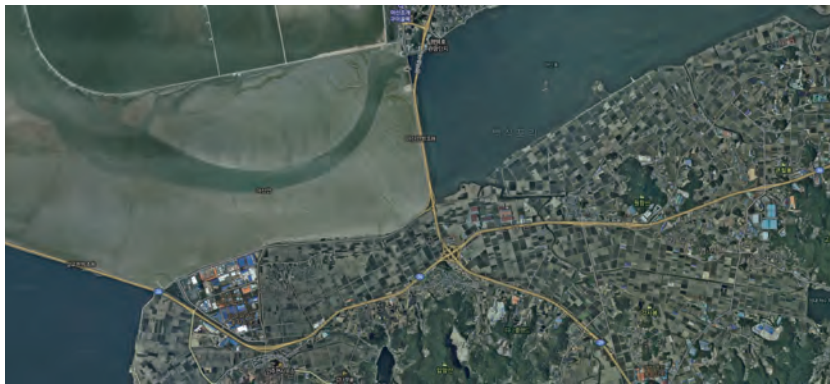
▲ [그림 3-20] 보령시 해안지역

9) 도서부 해안선이 195.71km으로 육지부 해안선의 두 배 이상이다. 실질적으로 섬지역이 주요한 해안경관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6.2 아산시

아산만의 갯벌지역과 아산호, 삽교호에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은 7.71km로 100% 인공해안선이다. 7개 시·군 중 가장 짧고 단순한 해안선으로 형성되어있다. 아산호와 삽교호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주변지역과 해안 인접지역은 농경지나 산업단지(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방조제나 호안에서 개방감 높은 해안 조망경관을 확보하기 용이하나 보행자의 해안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산호에 접한 농경지에는 대형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 해안림과의 이질성이 강하다. 아산호와 삽교호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에 의한 인공구조물은 많지 않으나 컨테이너 같은 가설물이 적지 않다. 인주산업단지 앞의 걸매리 갯벌에서는 저어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자료 : Daum

▲ [그림 3-21] 아산시 해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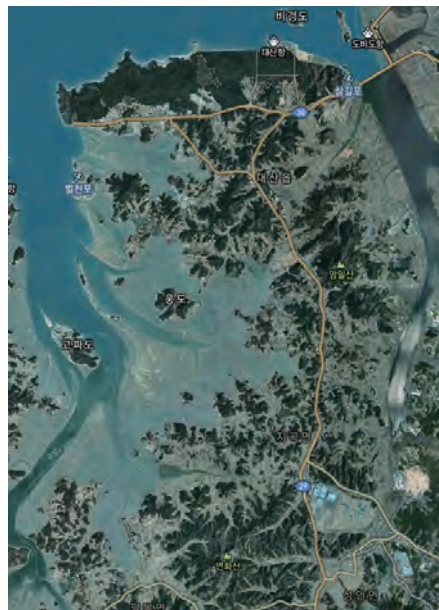
6.3 서산시

서산시 해안경관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의 연속된 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북측의 가로림만과 남측의 천수만으로 분절되어 있는 점이다. 가로림만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수심이 얕아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염전이 발달하였다. 천수만의 경우 서산 A, B지구 방조제 건설로 부남호와 간월호가 조성되어 있다.

서산시 육지부 해안선은 120.94km이며 자연해안선 비율이 48.34%로 태안군에 이어 가장 높다. 자연해안선은 가로림만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북측 대산항, 대산일반산업지와 천수만 일대는 인공해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림만은 갯벌, 염전, 포구들을 배경으로 전형적인 어촌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7개 시·군 중 도시지역 비율이 24.92%로 가장 높는데 가로림만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 13.33%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미지정 비율이 6.52%에 이른다. 부남호 일대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무역항인 대산항과 8개의 어항이 있다. 국가어항인 삼길포항과 지방어항인 간월도항, 구도항이 있고 5개의 어촌정주어항(포구)가 있다. 서산에는 별천포 해수욕장이 있으나 미지정해수욕장이며 서산의 중왕리 어촌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다.



자료 : Daum

▲ [그림 3-22]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자료 : Daum

▲ [그림 3-23] 서산시 천수만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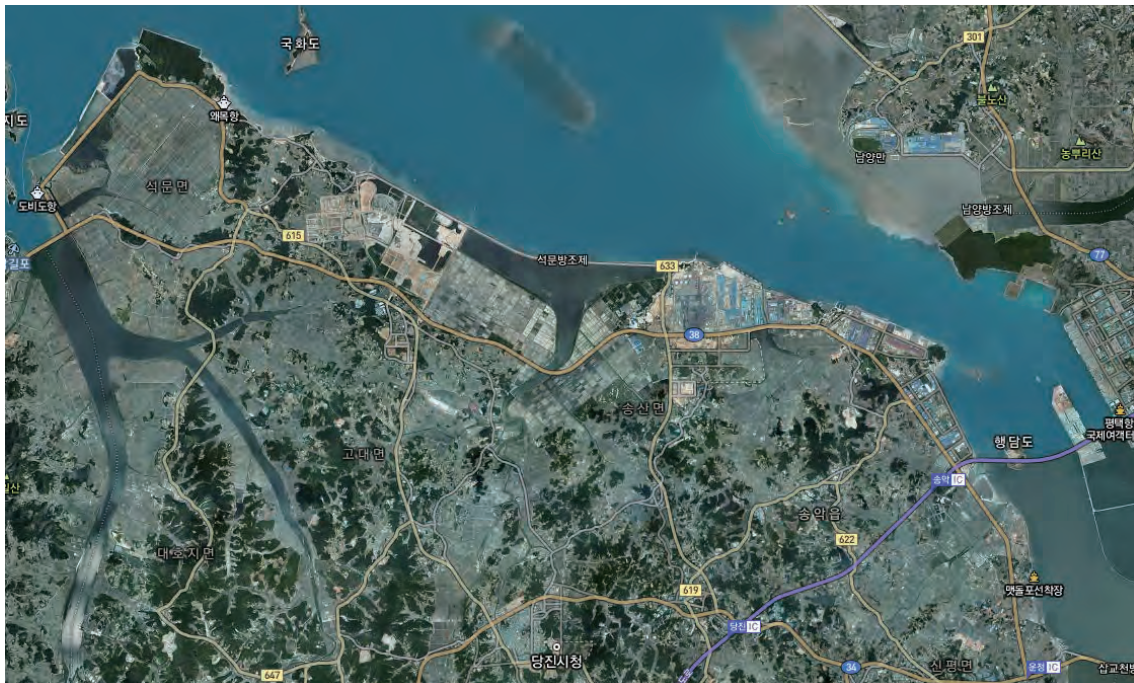
6.4 당진시

3개의 산업단지(석문, 송산, 아산)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방조제 건설로 당진의 해안선은 단순화, 직선화되었다. 육지부 해안선 길이는 84.94km로 7개 시·군 중 세 번째로 길지만 인공해안선 비율이 91.23%으로 가장 높다.

인공해안선 관리가 당진시 해안경관관리의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관리무역향인 평택·당진항과 국가산단, 발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당진시 차원의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단지와 방조제 사이에 어항(왜목항, 장고항, 도비도항), 소규모 포구(용무치, 성구미, 한진, 안섬, 음성, 맏돌), 왜목해수욕장이 있고 넓게 퍼진 아산만 갯벌이 있어 해안지역의 특성은 유지하고 있다.

방조제로 형성된 삽교호, 석문호, 대호지로 인해 조망형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행접근성이 좋지 않다.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왜목마을(해수욕장)을 들 수 있으며 해안 일부지역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정되는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다. 어촌지역은 주거와 관광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해안가에 입지한 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전소, 산단 공장 건축물, 송전탑은 당진시 해안경관에 있어서 가장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요소이다.



자료 : 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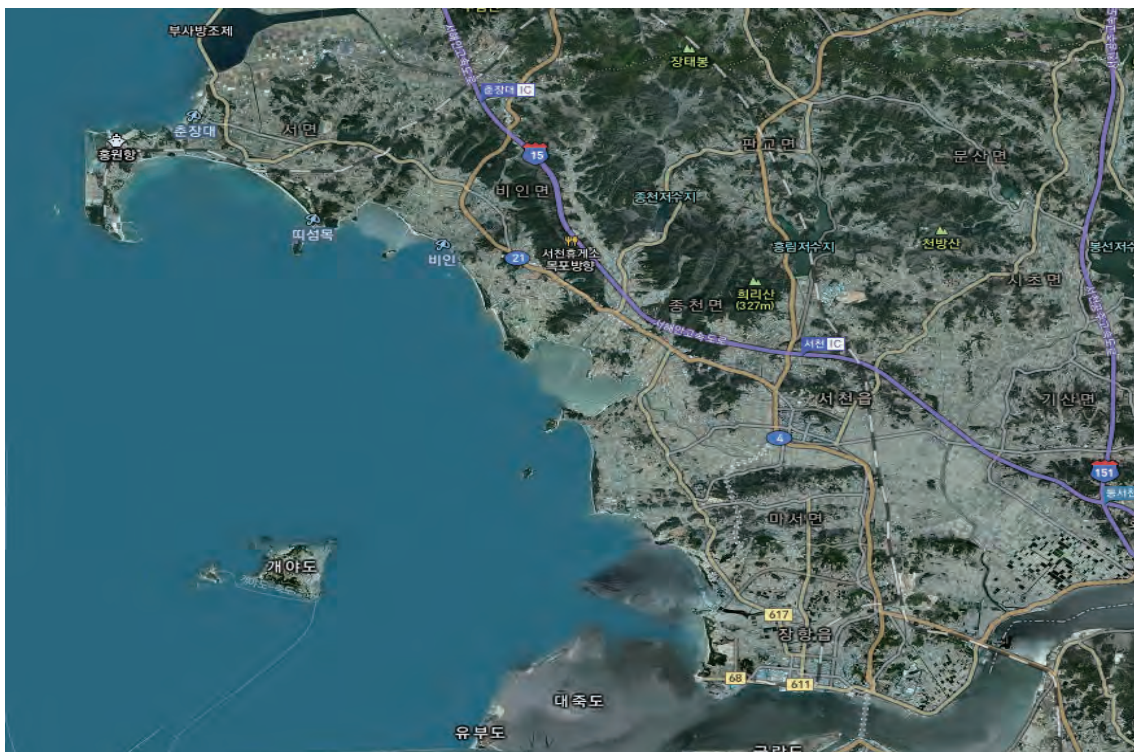
▲ [그림 3-24] 당진시 해안지역

6.5 서천군

서천군의 육지부 해안선은 북쪽의 부사방조제에서 시작하여 남측의 금강하구둑까지 총 78.54km이다. 자연해안선은 37.97km, 육지부 해안선은 40.57km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짧은 해안선이지만 비인만, 장구만과 같은 육지쪽으로 들어간 소규모 해만들이 있어 해안선의 요철이 있고 비안만 해안도로, 공암남촌길과 같은 해안도로로 인해 다양한 해안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마량리는 서해에 드문 해돋이마을로 유명하다. 또한 비인만, 장구만 일원과 장항을 송림리 일원에는 넓은 갯벌이 분포하고 있는데 송림갯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갯벌 면적이 가장 넓다.

다른 경관자원으로는 4개의 해수욕장, 4개의 지방어항(홍원항, 송석항, 다사항, 월하성항)과 장항항, 비인항이 있다. 장항항 일원에는 서천과 군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가 건설중이며 금강하구둑의 위치하고 있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저층의 주택과 펜션, 모텔등의 숙박업소 등 다양한 규모와 높이를 가진 건축물이 혼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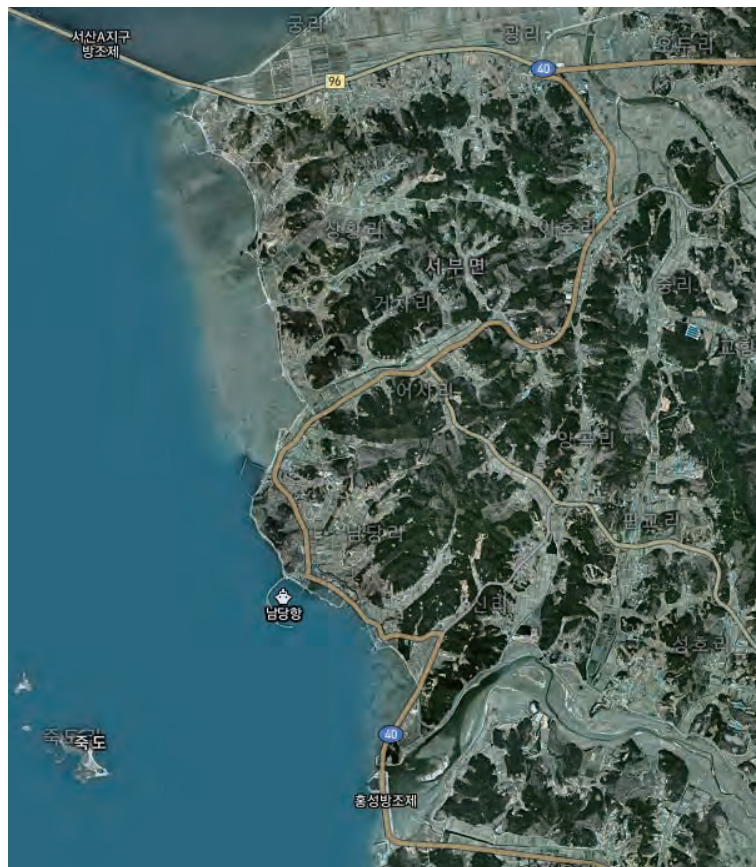
자료 : Daum

▲ [그림 3-25] 서천군 해안지역

6.6 홍성군

천수만에 접한 홍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해안선이 단조롭고 짧은 편이다. 육지부 해안선은 19.56 km로 아산시 다음으로 짧고 88.75%가 인공해안선이다. 북쪽의 서산A지구 방조제부터 남쪽의 홍성방조제까지 해안선의 많은 구간이 천수만에 접한 해안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과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해수욕장이 없으며 천수만변으로 갯벌이 발달하였다. 국가어항인 남당항과 지방어항인 어사항, 궁리항이 있으며 홍성방조제 근처의 수룡항포구와, 어량포구가 있다. 천수만측으로의 개방감 높은 해안도로경관과 조망경관을 확보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잘 살려 속도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 도로변은 농경지와 해안림이 발달하여 있다. 간월호와 궁리항 일대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료 : Daum

▲ [그림 3-26] 홍성군 해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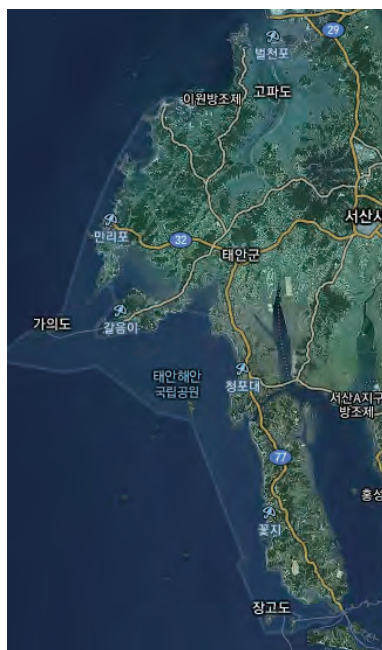
6.7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어 자연자원의 보존이 다른 시·군에 비해 양호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수한 해안 조망을 가진 경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육지부 해안선의 길이가 419.11km에 달하고 자연해안선의 비율도 63.53%로 7개 시·군 중 가장 높다. 다양한 경관자원이 있어 충남 해안지역의 특성을 대표한다.

30개에 달하는 해수욕장과 139.3km²의 넓은 갯벌, 보존이 잘 된 해안사구와 해안림(송림), 보호지역(신두리사구, 두웅습지), 역사문화자원인 소근진성과 안흥성 등 많은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8개의 어항이 있는데 이는 충남 전체 어항의 약 47%를 차지한다. 또한 지방무역항인 태안항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어촌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어업과 농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이 공존하여 농촌경관과 해안경관의 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펜션, 모텔, 상업시설(횃집 등)이 입지하며 기존의 어촌지역 특성이 변질되고 있어 해안경관의 보전적 관리가 경관관리의 주요 이슈다.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요소와 조화로운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영목항-원산도-보령간 연육교 개통이 태안 해안경관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해안경관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자료 : Daum

▲ [그림 3-27] 태안군 해안지역

7. 소결 (해안경관요소의 복합성과 대립성)

자연경관요소, 인공경관요소를 구분과 유형화의 방법으로 살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경관은 주체의 시점과 경관대상(요소)와의 거리(근경, 중경, 원경)에 따라 가변적, 종합적으로 지각, 인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관 관찰자의 관점과 태도(선호도)에 따라 경관의 질은 다르게 평가된다. 즉, 경관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사람과 일상의 공간으로 경관을 인지하는 사람은 동일한 경관요소를 보고도 다르게 평가한다. 따라서 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위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화 된 방법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경관요소의 시지각적 특성이나 디자인에 대해 평가의 시각을 가급적 배제하며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충남 해안지역 경관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경관요소들이 조화롭기도 하며 상호 대립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공 구조물과 건축물 중심의 도시지역이나 농경지와 산림 기반의 농촌지역보다 바다, 섬, 갯벌 등과 접한 해안지역은 자연적인 경관요소가 풍부해 상대적으로 경관이 형성되는 방식이 복잡하다.

또한 자연해안을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대립성은 도시지역, 농촌지역보다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농경지와 갯벌, 바다, 섬이 공존하고, 해안림에 인접하여 어항이 조성되어 있다.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동일한 공간이 바다와 갯벌로 변화하는 살아 움직이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갯벌, 모래해안과 공존하며 자연과 인공의 대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경관이 존재하고 있다. 자연지형인 해안절벽에 인접하여 도로와 방파제가 조성되고 해안림을 절토하여 건축물을 조성하는 현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안경관에서 보여지는 경관요소의 복합성과 대립성은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상호 중첩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농경지와 갯벌과 섬



해안림과 어항



어항과 갯벌지역



해수욕장과 발전소



자갈해안과 부두



간척지와 발전소



해수욕장과 인공구조물



해안림과 도시지역



자연지형과 해안도로



자연지형과 방파제

IV. 충남 해안 관련계획 분석

해안경관관리에 영향을 주는 도시, 경관, 농어촌, 관광, 해양, 항만, 어항, 환경, 연안관리, 자연공원, 습지, 생태계, 산지(해안림) 관련 법률과 계획을 검토하였다. 해안이나 연안공간과 관련된 법정계획과 충남의 광역계획을 검토하였다.

현행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법정계획의 실행계획(사업계획), 비법정계획이나 서해안에 특화된 계획을 검토하였다. 법정계획임에도 텍스트 중심의 정책계획(공간 범위 미설정 계획)은 제외하였다. 해안경관의 중요 요소인 도서와 관련된 계획들은 본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¹⁰⁾

1. 국가계획

국가계획 중 해안지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는 계획은 아래표와 같다.

▼ [표 4-1] 해안지역 국가계획 (분석대상)

구분	관련법	국가계획
국토 이용 및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5개년계획
	관광진흥법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해양 수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제1차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계획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10)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6)'과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이 있고, 무인도서관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5)'과 각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무인도서종합관리 계획 시행계획'이 있다. 현재 유인도서는 행정자치부가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전 관련 법률로는 환경부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이외에 행정자치부가 소관하는 '서해5도 특별지원법'이 있다.

구분	관련법	국가계획
해양 수산	항만법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어촌어항법	-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환경 생태	환경정책기본법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법	-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법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연안관리법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본계획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기본계획
	습지보전법	-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산지관리법	-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1.1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 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계획이며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나 관광분야 계획들이 해안지역 개발의 중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계획 중 공간계획을 다루고 있는 7개 계획을 검토하였다.¹¹⁾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충남 해안지역에서 중요한 내용은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이다.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육지부 개발 시 해양 환경의 수용력 고려,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전 · 이용 · 개발 질서 확립 둘째,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 ·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 · 해양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인 합리적인 정책 수립 · 시행이다. (대한민국정부, 2011, p.31)

11) 이외에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관광기본법에 의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있으나 정책계획이며 해안경관 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권역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충남해안 관련계획을 살펴보면 광역연계망 구축 (대전-당진간 고속국도의 대산 연장), 항만개발 (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제시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국 거점항으로 개발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 클러스터 지원항만 및 자동차 물류 거점항 육성토록 하고 있다. 서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습지, 갯벌 등 광역생태축 보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최상위계획이다. 18개 부·청 및 17 시·도가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계획으로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정책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별로 수립된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한다. 충남은 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고 북부권 첨단산업발전축, 서해안 국제교류 해양관광축, 금강생태문화축으로 공간발전축을 구분하였다.

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12-2021)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관광사업, 관광지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다. 권역단위로 관광권 공간전략 및 특성화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은 안면도, 원산도(태안·보령)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개발을 추진하고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보령 머드축제 등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축제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진-서천까지의 해안도로 조성 및 서해안의 섬과 섬, 섬과 육지의 접근로 조성으로 관광권역별 연계강화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 향상을 통한 체류형 관광 유도를 제안하고 있다.

4)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2008-2017)

서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동시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권역계획과 시·군 관광개발에 대한 지침계획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충남의 안면도, 원산도, 대천지구를 중심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삽교호 관광지, 만리포, 태안관광레저도시, 남당지구, 춘장대 해수욕장 등을 연계거점 개발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된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천지구, 안면도지구, 원산도지구를 중심거점 개발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연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삽교호 관광지, 만리포 해수욕장, 남당지구, 춘장대 해수욕장, 아산온천, 태안관광레저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아산온천을 제외한 5개소가 서해안 관광자원이다. 거점사업으로 대천지구(보령), 천수만(서산), 안면도지구(태안)를 제안하였고, 전략사업으로 불모도(보령), 가의/거야도(태안), 신두리사구(태안), 파인코스트 드라이브(태안), 왜목마을(당진), 유부도(서천), 마량리(서천), 연계사업으로 만리포 해수욕장(태안), 삽교호 관광지(당진), 남당지구(홍성), 춘장대 해수욕장(서천)을 제안하였다.

1.2 해양수산 관련 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며 분야별 계획인 어촌, 어항, 항만, 마리나항만 관련 계획이 있다. 해양수산분야 8개 계획을 검토하였다.¹²⁾

1)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1-202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종합계획이자 기본계획이다. 해안경관관리에 중요한 과제로는 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 및 정비,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연안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신 연안관리제도 조기 정착은 해안경관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시행, 생태계 기반 해양공간관리, 도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 투자, 연안정비사업의 생태친화성 강화, 공유수면관리의 공공성 강화, 연안경관(Coastal Scape)의 연속성 및 공유제 개념에 근거한 생태적 재개발 도입 등은 경관법 체계 내의 해안경관관리 정책과 관련이 깊다.

12) 이외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있다.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개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활성화,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활용, 하천, 해양환경개선 지원 등 농어촌경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기본계획으로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해안경관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추진과제 중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항만구역 내 해양친수공간 확충, 해양문화시설 확충,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섬 관광 활성화 등은 해안경관사업이라고 하여도 무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2014a, p.71)

충남 권역 추진전략은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해양경관 콘텐츠와 해양생물자원관의 연계 발전, 해양테마마을, 연안축제 등 지역특화형 관광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3)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16-202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기존의 수산진흥종합대책(수산업법), 어업·어촌발전계획(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관련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촌활력제고를 위한 어촌산업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어촌문화 육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어촌지구(가칭) 설정),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명품 어촌어항 조성 등 다양한 경관관련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어촌공간 설정과 통합적 개발을 위한 어촌지구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변경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해안권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의 4개 시·도지사가 세운 종합계획이다. 충남 해안 7개 시·군이 공간적 범위에 포함된다. 충남 서해안권은 해안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국제관광거점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도 77호선(대산-태안구간)의 단계적 확충을 제시하였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은 2010년 수립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서해안을 3개 권역(슈퍼경기만권, 충남서해안권, 새만금권)으로 구분하고 4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각 전략별 개발사업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충남 서해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다.

▼ [표 4-2]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내 충남 해안 관련 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평택·당진항 융합녹색기술 지대 육성	- 당진 내항지역을 항만 배후지역으로 육성 - 기반시설(항만, 진입도로) 확충, 마린센터 건립 등
서해안권의 Energy Belt 조성	- 태안 에너지종합특구 조성
태안 국제관광거점 조성	- 서산 웰빙특구 조성 -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 원산도 Seven Island 조성 - 안면도 관광지 조성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 신두리사구 자원화사업 - 남당관광지 정비 및 홍원항, 안흥항을 다기능항으로 정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항만물류산업 고도화/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	- 평택당진항, 보령신항 건설

자료 : 국토해양부 외, 2017

5)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2020)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항만정책 및 전국 30개 무역항 및 29개 연안항의 육성 및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 관리 대상인 충남 항만은 7개 소로 국가관리 무역항인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과 지방관리 무역항인 태안항, 보령항, 지방관리 연안항인 대천항, 비인항이다.

6)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 유도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전국에 6개소, 마리나항만에정구역은 5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은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가 마리나항만에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7)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14-2018)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하는 어촌과 어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³⁾ 어촌, 어항의 경관관리에 중요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창출로 부유한 어촌 구축,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구현,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이다. 세부사업 중 명품 어촌·어항 조성,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어촌관광 활성화,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등은 경관관리와 관련이 깊다. 어장, 어항, 연안, 어촌, 농촌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어촌그랜드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정계획에서는 어항정비사업 대상항을 42개항에서 58개항으로 확대하였다. 충남은 안흥항, 모항, 오천항, 삼길포항, 홍원항이 정비사업 대상항이다.

1.3 환경생태 관련 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환경생태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동법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고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환경종합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등은 각종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정비사업 등 연안관리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해안경관관리와 상관성이 높다. 환경생태분야 10개 계획을 검토하였다.

13)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하고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말한다.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개의 전략과 전략별 추진계획(사업)을 제시하였다. 7대 전략은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 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다.

2)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실천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환경종합계획이다. 4개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최상위계획으로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생물안전, 생태계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등 지자체 추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6대 목표로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생물 보호·복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이다.

4)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2011-2020)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10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분야계획이며 해양환경 관련 분야 종합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이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해양기인 오염 대응 능력 확충,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

전,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의 5개 분야별로 추진전략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5)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2011-2021)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연안용도해역제¹⁴⁾, 자연해안관리목표제¹⁵⁾, 연안해역기능구¹⁶⁾, 연안정비사업¹⁷⁾ 등 연안관리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전국을 8개 연안으로 구분하고 연안별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개 추진전략으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이다.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안경관관리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계획이라 할 수 있다.

충남연안의 통합관리 비전은 생태계와 해양산업이 상생하는 연안으로 해양생태-수산자원-해안관광의 연계·통합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생태계 및 연안경관을 고려한 해양 기반산업의 조화, 레질리언스가 강한 연안지역사회 육성 및 연안관리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별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4)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15)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선을 말한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생태적 특성, 환경적·경관적 가치,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 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해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17)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개선하는 사업,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등으로 구분된다.

▼ [표 4-3] 충남 연안통합관리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1)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2) 연안용도해역제 지정 3)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천수만, 가로림만은 광역지자체가 수립) 4)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5)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
생태계 건강 성 및 연안경관 증진	1) 해안사구 관리 강화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강화 3)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4) 아산만 및 금강하구 관리체계 구축 5) 우수한 연안경관을 지닌 도서 및 연안의 경관관리방안 수립 6) 해양생물 서식·산란지의 회복 및 복원 계획 수립 7) 천수만, 아산만 등 주변 해역의 종합적 수질개선 대책 수립 8) 마리나 조성 등에 따른 연안비점오염원 관리강화 9) 연안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강화	1) 태안군 일대 모래해안을 대상으로 연안침식모니터링체계 구축 2) 연안 침식 원인 파악 및 관리 대책 수립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주기적 점검
연안 거버넌스 구축	1)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보전-개발, 개발 간 갈등 체계적 해소 2) 당진, 태안, 신보령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해역 이용 및 인접개발의 상충 조정 3) 연안·해양 갈등조정 매커니즘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1)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 2) 연안 개발 수요의 적정 관리 3) 공유수면 관리 실태 및 불법 매립지의 주기적 점검 4) 연안·해양생태 공간정보 구축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p.140

6)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해안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연안정비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연안정비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2

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의하면 370개 사업, 1조 9,844억원의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은 23개의 연안보전사업과 11개의 친수연안사업이 추진된다.

▼ [표 4-4] 충남 연안정비사업 현황

항만	사업지구	주요내용
보령시	군입지구, 학성지구, 장고도지구	- 호안보수
서산시	오지지구, 삼길포지구, 왕산포지구, 호1리지구, 호3리지구	- 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 휴게, 친수공간 조성
당진시	안섬지구, 삽교지구, 용무지지구, 한진지구	- 호안정비 -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서천군	다시지구, 선도지구, 한성지구, 산단지구, 원수지구, 다사2지구, 생물자원관주변지구	- 호안조성 및 보수 - 친수공원 조성 - 보행데크 및 친수시설 조성 - 해역복원 및 연결로 조성
홍성군	거차리지구, 상항리지구, 어사리지구, 죽도지구, 남당지구	- 호안보수 - 자연해안복원 및 친수데크 조성
태안군	청산1, 2, 3지구, 꽃지해수욕장지구, 백사장해수욕장지구, 삼발골지구, 의항해수욕장지구, 청산4지구, 청포대지구, 학암포-구례포지구	- 호안정비 - 사구복원(꽃지해수욕장지구) - 목책설치사업

자료:해양수산부, 2014b, pp.18-19

7)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본계획 (2008-201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해양환경 관리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이다. 해양생태계는 해양생물과 그 생물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안습지(갯벌), 해안선, 무인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시도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8) 자연공원 기본계획 (2013-2022)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10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자연공원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 기초에 맞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되며 국립공원은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으로 구분된다. 충남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다.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는 5개의 추진전략과 1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내 경관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경관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국립공원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관리 기준 마련, 경관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의 가치향상, 경관 저해시설물 단계적인 정비, 경관 저해시설물 규제강화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제2차 습지보전 기본계획 (2013-2017)

습지보전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가습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내륙습지조사 및 전국 연안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충남 갯벌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2013-2017)

산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산지관리법에 근거한다. 광역시도의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산줄기연결망 관리 체계 구축,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 효율적 산지정보 관리 체계 확립의 5개의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을 27개 산림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산림경관권역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안도서형 산지유역에서는 해안림 및 도서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해안방재림 보전을 통한 해안선 및 연안경관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2. 충남계획

충남계획 중 해안지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는 계획은 아래표와 같다.

▼ [표 4-5] 해안지역 충남계획 (분석대상)

구분	관련법	충남계획
국토이용 및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충청남도 발전계획
	관광진흥법	-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도로법	-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해양수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항만법	-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환경생태	환경정책기본법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연안관리법	-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산지관리법	-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2.1 충남 국토이용 및 개발 관련 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최상위계획이며 이용과 개발관련 계획은 7개 분야로 구분된다. 경관계획이 포함되나 별도의 장에서 분석하였다. 도 종합계획과 관광개발계획에서 해안경관과 관련된 주요 시책과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종합계획으로 시·군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기본이 된다. 7개 부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 서해안권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하였다. 해안 시군은 북부권과 서해안권에 포함되어 있다. 도 종합계획 중 해안경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전략 중 경관자원 혹은 공간과 연계된 추진시책을 검토하였다.

해안경관과 관련된 분야는 농림축수산업, 관광, 경관, 자연환경보전, 물환경 분야가 해당된다.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어항·어촌 활성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경관관리지침 마련 및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 생태축보전 및 생태공원조성, 연안통합계획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표 4-6] 도 종합계획 중 해안경관 관련 시책과 사업

분야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농림축수산업	어항·어촌 활성화	- 어항 정비 및 개발 -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관광 개발
관광	Pine Coast 해양관광휴양 거점 조성	- 안면도 국제관광지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 천수만 생태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 원산도 Seven Island 조성 -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지정관광지 및 자연경관 명소관광지 조성	- 관광미항 건설(안흥, 보령, 홍원, 남당, 삼길포항 등)
	생태관광 기반조성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태안환경관광지구 조성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조성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어촌 관광마을 조성과 관광자원화	- 영목항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가족·건강·체험관광형 웰빙 관광상품 제공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해양수변레포츠형 위락시설 개발	- 태안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경관관리지역 중 보존대상지에 대한 지침 마련	-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경관관리지역 지정 - 전통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제시
경관	경관관리지역 중 개선대상지에 대한 지침 마련	-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산악 및 스카이라인 훼손에 대한 유도 지침 제시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	- 서해안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분야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광역생태축보전	- 연안정비(90개 지구)
	생태공원조성	- 해양생태체험장 조성 (서산 창리)
		- 탐조코스 개발(천수만 간월호) -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물환경	연안통합계획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자료 : 충청남도 종합계획 중 해안경관 관련 내용 발췌

2) 충청남도 발전계획 (2014-2018)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며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맞게 추진전략을 수정하였다. 5대 부문별 발전방안과 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5대 부문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개의 공간발전축과 광역도시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있어서는 6개 생활권별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핵심분야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3)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2017)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다.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7개소의 지정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남당리, 삽교호, 왜목마을, 간월도, 안면도, 만리포, 무창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죽도, 금강하구둑, 춘장대 해수욕장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충청남도, 2017, p.239)

또한 충남을 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고 19개의 전략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5개가 해안관광

사업이다. 내포문화관광권의 삼길산 전망타워(서산), 죽도 출렁다리 및 조망쉼터(홍성), 해양레저관광권의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 조성,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보령),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이 있다.

4)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2011-2020)

도로법에 근거한 충남 기본계획으로 도로부문 상위계획 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수립한 일반국도 경관도로 정비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31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충남의 경우 국도 36호선, 국도 40·45호선, 국도 77호선 3개 노선 중 국도 77호선 안면도구간 11.5km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계획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있는 경관도로 발굴을 위해 생태자연도 및 관광지, 하천, 유적지 등과 연계가 가능한 도로망계획을 검토하고 4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지방도634호선이 신두리사구와 두웅습지 인접 해안도로이다.

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2015)

충남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한 도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비전과 5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법제, 조직 등 행정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2.2 충남 해양수산 관련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어업어촌, 항만, 마리나 항만계획을 검토하였다.¹⁸⁾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해안경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18) 이외에도 서해안 비전과 3농혁신 계획이 있으나 서해안비전은 대부분의 내용이 해양수산발전계획에 포함되었고, 3농혁신 발전계획은 어촌, 어업분야 내용이 적고 정책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2015-2030)

2015년 3월에 발표된 ‘서해안비전’을 중심으로 도내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연안지역의 7개 시·군의 지역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이다. 6대 추진전략과 전략별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²⁰⁾ 해안경관관리와 관련이 깊어 전략별 주요과제를 정리하였다.

■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분야 과제

▼ [표 4-7]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지역 및 내용
연안습지 환경개선 생태가치 제고	- 습지보호지역 : 태안 두웅습지(내륙습지), 서천갯벌(연안습지) - 생태경관보전지역 : 보령 소항사구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태안 신두리사구
시·군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연안 7개 시·군
연안침식 방지 및 저감기술 개발	- 6개 시·군 20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 보령1, 서산4, 당진4, 서천4, 홍성1, 태안6
아름다운 해안선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해안선 경관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발영향 누적 평가지표 개발 - 지역별 개발행위 제한지역 설정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생태계 관리	- 보호대상해양생물(점박이 물범, 장수삿갓조개, 거머리말, 새우말 등) 서식지 분포도 조성 - 해양공간계획에 기반한 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
이상기후를 대비한 방재체계 구축	- 해안방재림 조성 및 관리 강화 (충남 해안방재림 358ha에서 87ha 감소)

자료: 충청남도, 2015a, pp.263-300 요약

19) 추진전략으로는 1)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2)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3)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4)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5) 국제물류·항만의 거점 조성, 6)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 · 관광 분야 과제

▼ [표 4-8]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 · 관광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가로림만 융합형 관광지 조성	- 가로림만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 - 어촌마을 중심의 해양체험 · 관광지 조성 등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 천수만권역 개발추진위원회 운영 - 태안북측지구(부남호), 태안남측지구(안면도), 서산지구, 홍성지구, 보령지구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 복합 휴양시설 구축 및 관광산업 육성
안면도 관광지 개발	- 테마파크, 워터파크, 콘도, 기업연수원, 씨사이드, 골프장 등
대천 머드관광 고부가가치화	-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해수욕장 종합정비 차별화사업	- 명품 해수욕장 5개소 조성 (대천, 무창포, 꽃지, 만리포, 춘장대) - 경관감상형 : 호도해변, 벌천포해변, 용두해수욕장 - 레저 · 체험형 : 신두리, 왜목마을 해수욕장
음성포구~삽교호 해양친수공간 조성	-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사업 - 삽교호 관광지 특화사업 - 맷돌포 · 음성포구 친수공간 조성 등
신두리사구 관광패키지 개발	- 신두리사구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 태안해변길 산책로 조성
장항 해양생태마을 조성	- 송림갯벌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	- 영목항 나들목 해양친수 태마공원 조성 - 땅끝상징 랜드마크 설치
서해 요트아일랜드 조성	- 요트 네트워크 조성
홍원항 관광지 조성	- 춘장대~홍원항 해안연결 도보코스 조성 - 해상산책로 설치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조성	- 바다 낚시공원 조성
수도권 맞춤형 해중레저 관광여건 조성	- 우수 해중경관 포인트 지정 -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 왜목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안흥 스토리텔링형 중국 역사자원 발굴	- 안흥항 스토리텔링형 역사자원 발굴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303- 367 요약

■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 아름다운 어항 분야 과제

▼ [표 4-9]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 아름다운 어항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어촌문화 개선을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마을 경관개선 - 어촌체험마을 추가지정 등
유형별 어항 기반시설 개선	- 국가, 지방, 어촌정주 어항 대상으로 다기능, 관광산업형, 에너지자립형 등의 어항별 개발 - 충청남도 어항관리 및 개발계획 제시 (충청남도, 2015, p.386 참조)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조성 등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370- 436 요약

■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분야 과제

▼ [표 4-10]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아산에코테크노파크 조성	- 아산 인주면 갈매리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산업단지 개발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439-470 요약

■ 국제물류 · 항만의 거점조성 분야 과제

▼ [표 4-11] 국제물류 · 항만의 거점 조성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항만배후단지 조성	- 당진항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 대산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리나 항만 개발	- 거점형 마리나항만(당진 왜목)개발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개발대상지(7개소)개발
크루즈 항만 개발	- 크루즈 항만 개발(대산항, 당진항, 보령신항)
항만 재개발 및 재정비	- 항만 및 연안 사회간접자본시설 개선모델 - 연안지역 개발현황 문제점 진단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모델 연구
장항항 녹색항 조성	- 친수호안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물양장 축조
대천항 리노베이션 사업	- 수산물 관련 다기능 종합단지 조성 - 친수공간 조성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473-502 요약

■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

▼ [표 4-12]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서해안 광역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평-내항 연결도로,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 서해선 복선전철화·삽교역사 신설, 장항선 복선 전철화 및 개량
지역상생발전 연육교·연도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난지도-소난지도 연도교 건설 - 안흥항-신진도리 해상인도교 건설
관광·산업 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대산 연육교, 보령-울진 고속도로 - 충청 산업·문화 철도, 서해산업선 -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 남당항 진입도로 - 부남호 연결교량 - 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연결도로(서천군) - 송석항-송림 산림욕장 해안도로(서천군)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505-519 요약

■ 충남 골든오션 6대 프로젝트

▼ [표 4-13] 충남 골든오션 6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요 사업 내용
서해 연안환경 클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해안선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진화 -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및 담수호 수질개선 - 연안습지 환경개선 및 생태가치 제고
행복한 어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생산량, 고품종 전락 수산물 확대 및 친환경 양식 활성화 - 수산물 가공품 증대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 수산물 브랜드 가치제고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소득원 증대 및 다양화 - 아름답고 안전한 어항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중심으로 조성
가로림만·안면도·원산도 생동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림만 융합형 관광지 조성 - 안면도 관광지 조성 및 수산경제 육성 -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 어촌마을 중심의 해양체험·생태관광지 조성

프로젝트명	주요 사업 내용
레포츠 Dream Line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나 항만 개발 -서해 요트아일랜드 조성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 육성
해양신산업 레인보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해양바이오수소 단지 조성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해양수산 기능성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해수활용 냉난방 시스템 구축
환경해권 거점 항만물류 네트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 개발 및 미항화 -주요 무역항 화물처리능력 향상 -항만 재정비를 통한 항만 친수공간 확보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항만 활성화

자료 : 충청남도, 2015a, pp.523-565 요약

2) 충청남도 어업 · 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2016)

2015년 수립된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충남 연안 7개 시 · 군별 중장기 발전 계획 모색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6대 전략과 총 53개의 각 전략별 세부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²⁰⁾ 전략 별 세부사업 대상지는 7개 시 · 군의 연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각 세부사업 추진 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적격 예상지만 시 · 군 차원에서 선정되어 있다.

해안경관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 및 리사이클 센터 건설, 연안습지구역 및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주민역량강화사업 확대 시행, 대규모 해상복합 낚시공원 설치, 해양생태어촌 관광마을 육성, 어촌체험마을 고유 중심테마 발굴 등이다.

20) 6대 전략으로는 지역맞춤형 명품 수산업개발(16개 사업),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조성(15개 사업), 충남어촌 지역역량 및 복지강화(8개 추진사업), 수산물 가공 · 유통 · 안전 시스템 구축(6개 사업), 가보고 싶은 충남 어촌관광 건설(6개 사업), 융복합 해양바이오산업 개척(2개 사업)이다.

▼ [표 4-14] 충남 어촌체험 관광마을 현황

시·군	마을	시·군	마을
보령시	무창포마을, 장고도마을	서천군	월하성마을
서산시	중리마을	태안군	대야도마을, 만대마을, 용신마을, 영목마을, 병술만마을

자료: 충청남도, 2016a, p.31

3)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2012)

충남도내 무역항과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권 7개 항만(무역항 5개, 연안항 2개)의 종합항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장동력화, 항만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해양관광산업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항만개발 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라는 전략과 17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개 항만별로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해안경관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해양관광 및 친수성 강화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천항의 항만내 친수공간 확보, 항만재개발 및 시설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충남 해안의 마리나 및 크루즈시설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4)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2014)

충남도 내 19개 마리나항만 후보지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개발가능성 재검토 및 개발방향 설정, 중장기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표 4-15] 충남 마리나항만 후보지

지자체	후보지	지자체	후보지
보령시	오천, 무창포, 원산도, 보령	서천군	홍원
서산시	대산, 창리, 간월도	홍성군	남당, 궁리
당진시	장고, 왜목, 석문	태안군	모항, 안흥, 마검포, 갈음이, 부남호, 라암도

자료: 충청남도, 2014b, p.27

2.3 충남 환경생태 관련계획

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정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5차 환경보전중기계획’과 연계된 충청남도 차원의 환경종합계획이다.²¹⁾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전략 구체화를 위한 계획으로 국토계획 체계인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상호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환경, 산림생태, 연안환경, 토양환경, 대기, 물환경, 환경보건, 소음진동과 빛공해, 악취, 폐기물, 기후변화, 환경산업과 일자리, 국제환경협력, 환경교육, 환경갈등관리 15개 분야 50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충남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안경관과 관련이 깊은 자연환경, 산림생태, 연안환경 분야의 추진전략과 중점사업을 도출하였다.

▼ [표 4-16]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부문계획 중 해안경관과 관련된 전략과 사업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자연환경	- 생태관광 시장의 경쟁력 확보 - 야생 동·식물 효율적 관리 기반 확보 - 우수 자연환경의 자원화	- 충남 자연환경정보 활용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충남 생태관광의 체계적 운영
산림생태	- 구조적·생태적 산림자원 보전	- 광역산림생태축의 구조적 관리를 위한 연결녹지 선정 및 DB 구축
연안환경	- 연안생태계의 지역적·체계적 관리 - 구역별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특성화	- 연안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중요 갯벌(연안 및 섬)의 생태적 기능성 강화 방안 마련

자료 : 충청남도, 2015b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2016)

충남 서해안 7개 시·군 내 연안 및 하구지역의 인공구조물을 조사하고 시설물 분류, 복원가능 대상지 선정, 생태복원 타당성 검토, 생태환경 모니터링, 구체적인 복원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방조제 5개소, 폐염전 10개소, 해빈 및 해안사구 5개소를 복원 가능대상지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보령호 (방조제)와 고파도 폐염전을 복원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다.

▼ [표 4-17] 충남 생태복원 가능지 및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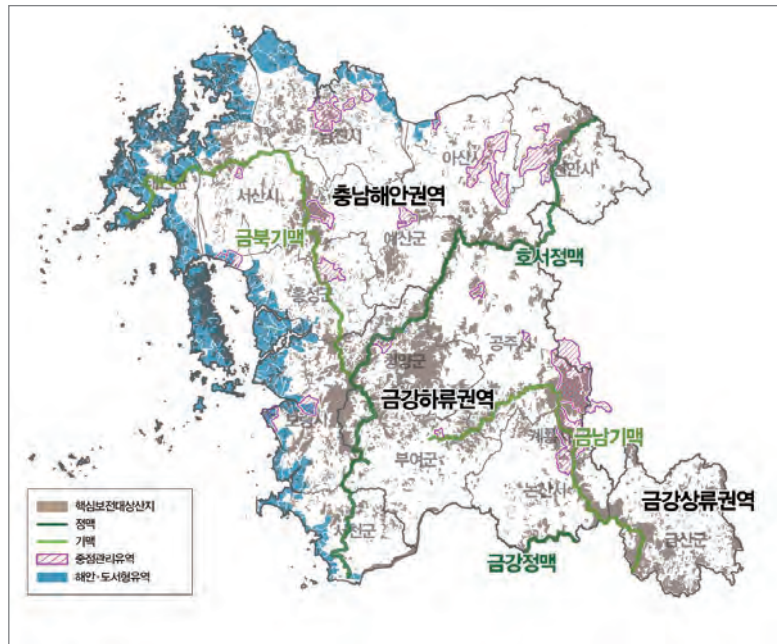
유형	생태복원 가능지	복원대상지 선정결과
방조제	- 보령 방조제(보령, 국가관리) - 홍성 방조제(홍성, 국가관리) - 서산B지구 방조제(서산, 민간) - 이원 방조제(태안, 국가관리) - 석문 방조제(당진, 국가관리)	- 보령호(방조제)
폐염전	-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외 9개소	- 고파도(폐염전)
해빈 및 해안사구	- 꽃지 해수욕장 (태안) - 만리포 해수욕장 (태안) - 무창포 해수욕장 (태안) - 방포 해수욕장 (태안) - 백사장 해수욕장 (태안)	

자료 : 충청남도, 2016b, pp.405-410, p.459

3)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2014-2017)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수립하는 도 단위의 산지관리 법정계획이다.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체계 구축,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산지의 녹색서비스 증진의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산지권역인 충남해안권역, 금강하류권역, 금강상류권역별로 산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해안권역은 해안생태계의 다양성(해안방재림, 금강송, 철새도래지 등)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안권역의 경우 핵심보전대상산지의 전용 억제 및 경관관리, 계획적 해안림 관리방법²²⁾ 적용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안도서형 산지유역은 해안선을 포함하는 유역으로 해안림 보전과 연안관리에 역적을 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안지역의 중점관리유역은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에 분포하고 있고 핵심보전대상산지는 가로림만과 태안반도 천수만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자료: 충청남도, 2013b, p.74)

▲ [그림 4-1] 충남 해안림 관리방식

22) 해안림 관리방식으로 일정거리 규제방법(당진시 방식), 가치평가법, 계획적 관리방법 중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적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충남 해안지역의 정책 방향

3.1 국가계획의 정책 방향

충남 해안지역 국가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지역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으로 크게 구분된다. 항만, 어촌어항, 관광 관련 계획들은 개발 지향적이고 환경 분야 계획들은 보전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해안지역 통합적 관리를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연안통합관리계획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해양수산발전계획도 균형잡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개발과 보전목표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경관관리와 밀접한 계획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목표는 주로 항만, 해양레저관광, 휴양·친수공간, 어촌어항 개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생태계(야생생물) 보호, 습지·해안림·경관자원 보전, 기후친화적 환경 관리를 추구하는 보전 목표와 상호 대립된다. 연안통합관리계획 내의 신연안관리제도(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정비사업 등)나 연안관리지역계획은 해안지역 경관관리에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8] 충남 해안지역 국가계획의 개발, 보전, 통합관리 목표

개발 목표(계획)	관리 목표(계획)	보전 목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육성 및 개발(무역항, 연안항) -마리나 항만 개발 -해양레저관광개발 -해안도로 개발 -휴양·친수공간 정비 -어촌·어항 정비 및 개발 -어촌그랜드디자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기반 통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 수용력 고려한 개발 -자연해안 유지(인공해안 복원) -서해안 광역생태축 보전사업(사구, 습지, 갯벌) -신연안관리제도 적용(연안용도해역제 등) -연안관리지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가치 기반 관리 -기후친화적 환경관리 -생태계(서식지)보호(야생생물 보호·복원) -습지보호구역 관리 강화 -맞춤형 해안림 관리 -해안선·연안경관 보호 -경관자원 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산업·어촌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자연공원 기본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 -산지관리 기본계획

충남 해안 경관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표 4-19] 국가계획의 충남 해안지역 정책방향

유형	계획	정책방향
국토 이용 및 개발	국토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 고려 (연안의 보전 · 이용 · 개발 질서 확립) -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 서해안의 사구, 습지, 갯벌 등 광역생태축 보전사업
	관광개발기본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개발 추진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 당진-서천 해안도로 조성 - 거점사업 3개소, 전략사업 4개소, 연계사업 4개소
해양 수산	해양수산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연안 · 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시행 :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 : 연안정비사업의 생태친화성 강화 : 연안경관의 연속성 및 공유재 개념에 근거한 생태개발 -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고 정비 -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향만 개발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휴양공간 조성 · 정비 - 향만구역 내 해양친수공간 확충 - 해양문화시설 확충 및 어촌의 관광자원화
	수산업 · 어촌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어촌지구(가칭) 설정)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명품 어촌어항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 당진항 녹색기술지대 육성 - 태안 에너지종합특구 조성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7개사업)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향만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및 연안항 육성 및 개발계획 - 국가관리 무역항: 평택 ·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 지방관리 무역항: 태안항, 보령항 - 지방관리 연안항: 대천항, 비인항

유형	계획	정책방향
해양 수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충청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개소) -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 원산도
	어촌어항발전계획	- 명품 어촌 · 어항 조성,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 - 어촌관광 활성화,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 구축 - 어촌그랜드디자인사업 추진 (어장, 어항, 연안, 어촌, 농촌을 통합적으로 정비) - 어항정비사업 추진 (안흥, 모항, 오천, 삼길포, 홍원)
환경 생태	국가환경종합계획	- 생태계 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생물 보호 · 복원
	해양환경종합계획	-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 보전 -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연안통합관리계획	-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정비사업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천수만, 가로림만(광역지자체)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해안사구 관리 강화, 연안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아산만 및 금강 하구 관리체계 구축, 우수한 연안의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 연안침식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
	연안정비 기본계획	- 해안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연안보전사업(23개)과 친수연안사업(11개) 추진 (14-19)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본계획	- 연안습지(갯벌), 해안선, 무인도서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도)
	자연공원 기본계획	- 태안해안국립공원 보전 · 관리계획 : 경관자원 보전 ·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국립공원 경관관리 기준 마련 : 경관 저해시설물 단계적 정비 및 규제강화
	습지보전 기본계획	- 습지보호구역 관리 강화
	산지관리 기본계획	- 해안림 및 도서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 해안방재림 보전을 통한 해안선 및 연안경관 보호

3.2 충남계획의 정책 방향

국토이용 및 개발, 해양수산, 환경생태 분야의 충남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계획은 법정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충남 공간에 적용하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합계획과 해양수산 발전계획이 해안 경관관리에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에서는 경관관리 방안으로서 관련 지침마련, 시책사업 추진(해안탐방로, 경관도로 조성),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해양수산종합계획에서는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별 개발행위 제한지역 설정, 어촌마을 경관개선 및 관광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두 계획 모두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시·군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종합계획에서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도 및 시·군 경관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해안경관변화에 영향을 주는 항만, 어항, 어촌, 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발과 보전·관리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나 계획 내부에서 혹은 각 계획 간에 개발과 보전의 관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20] 충남 해안지역 정책 및 사업

개발 지향의 정책과 사업	관리 및 보전 지향의 정책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7개항만 종합항만화(항만재개발) - 충남 마리나항만 후보지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ne Coast 관광거점, 골든오션 6대 프로젝트 등 - 주요거점 관광개발 등 - 관광지 조성 : 가로림만, 천수만, 원산도, 안면도, 삽교호 - 해수욕장 종합정비사업 - 신두리사구 관광패키지 개발 - 경관도로 발굴 - 관광미항 건설 및 어항·어촌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목항, 홍원항, 왜목항, 안흥항 개발 - 대규모 해상 낚시공원 조성 - 어촌마을 경관개선 및 관광활성화 등 -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 -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생태계의 지역적·체계적 관리 - 연안습지 환경개선 생태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웅습지, 서천갯벌, 소항사구, 신두리사구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구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 광역생태축보전(연안정비 90개소) - 충남생태관광의 체계적 운영 - 생태공원 조성(창리, 간월호, 가로림만)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군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 지역별 개발행위 제한지역 설정 - 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 - 해안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 - 해안방재림 조성 및 관리 강화 - 핵심보전대상산지의 전용역제 및 경관관리 - 해안쓰레기 수거 및 리사이클 센터 건설 - 생태복원가능지 및 대상지(보령호, 고파도)

해안경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남계획의 주요 정책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표 4-21] 충남계획의 해안지역 관리방향

유형	계획	정책방향
국토 이용 및 개발	충남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 어촌 활성화 - Pine Coast 해양관광휴양거점 조성 (5개소) - 관광미항 건설 (5개소) - 생태관광 기반조성(태안환경관광지구, 신두사구, 장항제련소) - 영목항 관광단지,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 경관관리지역 지침마련 - 경관관련 시책사업 추진(해안탐방로, 경관도로 조성) - 충남 100경 가꾸기 사업 - 광역생태축보전(연안정비 90개소) - 생태공원 조성 (창리, 천수만 간월호, 가로림만)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시행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관광(단)지 : 해안지역 11개 단지 - 전략사업 : 해안지역 3개소 (삼길산, 죽도, 태안특구)
	충남 도로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도로 발굴 (생태자연도, 관광지, 하천, 유적지 연계) : 지방도 434호선 (신두리사구와 두웅습지 인접도로)
해양 수산	충남 해양수산업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습지 환경개선 생태가치 제고 : 두웅습지, 서천갯벌, 소항사구, 신두리사구 - 시 · 군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연안정비사업 추진 (20개 지구) -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별 개발행위 제한지역 설정 - 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 - 해안방재림 조성 및 관리 강화 - 가로림만, 천수만, 원산도, 안면도, 삽교호 관광지 조성 - 해수욕장 종합정비사업 (명품해수욕장 5개소 등) - 신두리사구 관광패키지 개발 - 영목항, 홍원항, 왜목항, 안흥항 개발 - 송림갯벌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 어촌마을 경관개선 및 관광활성화 - 어항 유형별 기반시설 개선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아산에코테크노파크 조성 - 항만 개발, 장항항 녹색항 조성, 대천항 리노베이션 사업 - 충남 골든오션 6대 프로젝트 : 서해 연안환경 클린 프로젝트, 행복한 어촌만들기, 가로림만 · 안면도 · 원산도 생동프로젝트, 레포츠 드림라인 조성

유형	계획	정책방향
해양 수산	충남 어업 · 어촌 증장기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쓰레기 수거 및 리사이클 센터 건설 - 연안습지구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 주민역량강화사업 확대 시행 - 대규모 해상복합 낚시공원 설치 - 해양생태어촌관광마을 육성 - 어촌체험마을 고유 중심테마 발굴
	충남 항만발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7개항만 (무역항 5개, 연안항 2개) 종합항만화 - 대천항 항만내 친수공간 확보 - 항만재개발 및 시설활용 - 마리나 및 크루즈시설 확충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마리나항만 후보지 증장기 활성화 방안 - 19개소
환경 생태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 동식물 효율적 관리 기반 확보 - 충남 생태관광의 체계적 운영 - 구조적 · 생태적 산림자원 보전 - 연안생태계의 지역적 · 체계적 관리 - 중요 갯벌의 생태적 기능성 강화방안 마련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복원가능지 제시 : 방조제 5개소, 폐염전 10개소, 해빈 및 해안사구 5개소 - 복원대상지 제시 (보령호, 고파도)
	충남 산지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해안권역의 산지관리방향 제시 - 해안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 (해안방재림, 금강송, 철새도래지 등) - 핵심보전대상산지의 전용 억제 및 경관관리 - 계획적 해안림 관리방법 적용 - 해안림 보전과 연안관리에 역점

V. 충남도·시·군 경관계획 분석

1. 도·시·군 해안경관계획

도 및 7개 시·군은 별도의 해안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경관계획에서 해안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자체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145호)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계획은 조사-기본구상-기본계획-부분별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실행계획의 동일한 구조를 나타낸다.

분석내용을 해안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도·시·군 경관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 항목을 구조-자원-관리범위-관리수단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해안지역과 관련 된 (1) 경관 구조(경관권역, 경관축) (2) 경관자원(거점)과 조망점 (3) 해안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관리범위 (4) 해안경관관리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권역, 축, 거점이 경관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나 모든 경관계획이 경관 자원과 경관거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경관거점을 경관자원, 조망점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경관관리범위를 한정하는 해안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구역경계 설정방식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관관리의 실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관심의, 경관설계지침, 경관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표 5-1] 경관계획수립지침 구성과 충남 경관계획 분석 항목

구분	구성 (주요 내용)	분석 항목
경관계획의 유형 (1장 5절)	(1) 도 경관계획 (2) 시·군 경관계획 (3) 특정경관계획	○ ○ 충남도는 미수립
경관계획의 내용 (2장 1절)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특정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 실행 계획 (재원조달 및 추진) (11) 그 밖에 지자체 조례 규정 사항	○ ○ ○ ○ ○ ○ ○ ○ ○
경관조례	도·시·군 경관심의 대상 (해안지역)	○

1.1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의 설정

1) 경관권역

충청남도는 경관권역을 인접 시·군을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²³⁾ 권역구분의 기준은 위치(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해안 인접 여부(서해안권역), 지역 특성(역사문화권역)이 혼용된다. 해안에 인접하였으나 아산시, 당진시는 북부권역, 홍성군은 중부권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시·군도 경관권역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읍·면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한다. 보령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경관유형을 경관권역화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안관련 권역을 해안, 갯벌, 섬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산시는 해안권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변평야권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23)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 해안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서산시와 태안군은 해안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2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안관련 권역은 성격에 따라 수변평야, 해안교류, 해안산업, 연안생태, 청정해안, 생태환경보전, 해안, 갯벌, 섬, 수변관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 : 충청남도, 2013a, p.72

▲ [그림 5-1] 충남 5대 경관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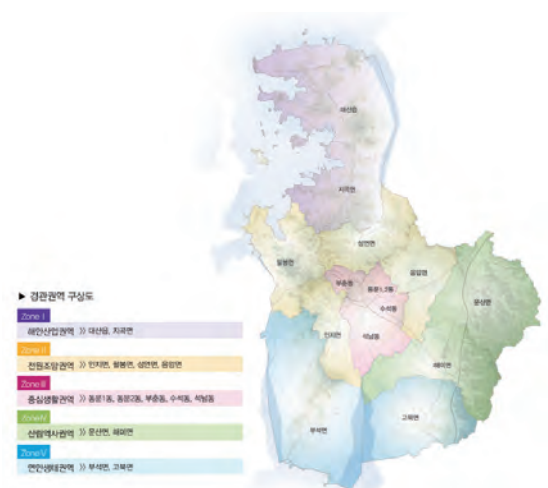
자료 : 보령시, 2011, p.80

▲ [그림 5-2] 보령시 경관권역



자료 : 아산시, 2012, p.72

▲ [그림 5-3] 아산시 경관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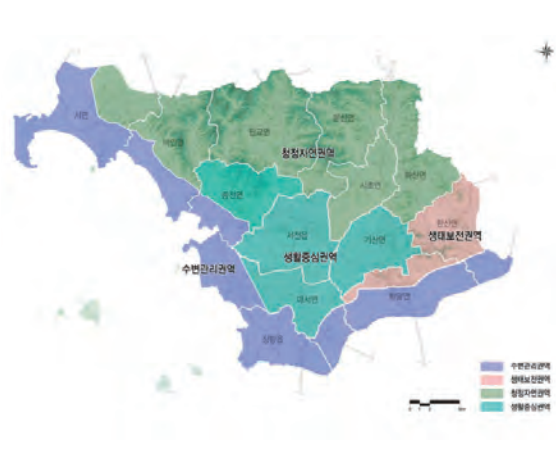
자료 : 서산시, 2014b, p.92

▲ [그림 5-4] 서산시 경관권역



자료 : 당진시, 2012, p.93

▲ [그림 5-5] 당진시 경관권역



자료 : 서천군, 2015, p.88

▲ [그림 5-6] 서천군 경관권역



자료 : 태안군, 2015b, p.97

▲ [그림 5-7] 태안군 경관권역



자료 : 홍성군, 2016, p.83

▲ [그림 5-8] 홍성군 경관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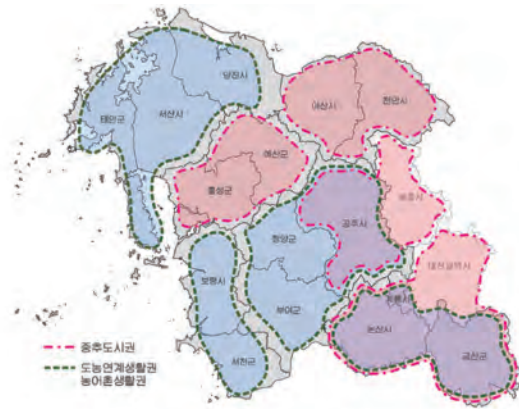
도 경관권역과 충남 타 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을 비교, 검토하였다. 도 공간계획들은 일반적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전략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각 계획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권역구분은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제어,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살린 경관관리를 위해서라

면 타 계획의 권역구분을 검토하거나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 경관계획은 경관권역을 행정 시·군을 단위로 설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충남 주요계획의 권역구분은 아래와 같다.



자료 : 충청남도, 2012, p.70

▲ [그림 5-9]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권역



자료 : 충청남도, 2014a, p.55

▲ [그림 5-1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자료 : 충청남도, 2017, p.257

▲ [그림 5-11] 충남관광개발계획



자료 : 충청남도, 2015b, p.508

▲ [그림 5-12]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권역 구분

2) 경관축

충청남도는 4대 경관축을 해안, 하천, 녹지, 도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축별로 보전, 관리, 형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해안경관축에서는 해안, 해만(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해안경관도로, 합수부, 방조제, 국립해상공원, 항만, 해수욕장을 경관축의 주요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로축에서는 해안경관도로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해안경관축과 해안도로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군도 유사한 축 구분을 따르는데 해안축을 별도로 유형화 하지 않고 수변축에 포함시키고 있다. 5개 시·군이 수변축의 하위축으로 해안축과 하천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령시와 태안군은 해안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녹지(산림), 수변, 도로(가로) 3대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태안군은 수변축이 아닌 해안축을 활용하고 있다.²⁴⁾ 시·군 중 보령시가 도 경관계획과 동일한 4대 경관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경관계획을 수립한 홍성군은 역사, 녹지, 수변, 발전, 교통 5개의 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군 경관축 구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해안도로축을 도로축의 하위 구분으로 놓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는 해안, 하천, 녹지, 도로라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상의 축 구분에 따른 기계적인 세부축 구분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안경관은 수변축(해안축)과 해안도로축으로 이원화 되어 계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태안군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해안경관축을 경관구조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경관축1로,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해안경관축2로 구분하고 있다. 경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축의 공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축은 경관계획에서 하나의 선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수변경관축의 구분을 살펴보면 아산시는 해안과 천으로 서산시는 해안, 호안, 하천으로 홍성군은 해안, 하천, 저수지로 구분하고 있다.

25) 도로(가로)경관축의 하위 구분으로 해안도로축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은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이다. 당진시의 경우 수변경관축과 해안도로축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료 : 충청남도, 2013a, p.74

▲ [그림 5-13] 충남 4대경관축



자료 : 보령시, 2011, p.82

▲ [그림 5-14] 보령시 경관축



자료 : 아산시, 2012, p.75

▲ [그림 5-15] 아산시 수변축



자료 : 서산시, 2014b, p.95

▲ [그림 5-16] 서산시 경관축



자료 : 당진시, 2012, p.93

▲ [그림 5-17] 당진시 경관축



자료 : 서천군, 2015, p.89

▲ [그림 5-18] 서천군 경관축



자료 : 홍성군, 2016, p.85

▲ [그림 5-19] 홍성군 경관축



자료 : 태안군, 2015b, p.99

▲ [그림 5-20] 태안군 경관축

▼ [표 5-2] 도·시·군의 경관권역, 경관축 구분

구분	경관권역	경관축
도	- 서해안, 북부, 중부, 남부, 역사문화 (5개)	- 해안, 하천, 녹지, 도로
보령시	- 해안, 갯벌, 섬, 도시, 농촌취락, 평야, 수변, 자연녹지(8개)	- 해안, 하천, 녹지, 가로
아산시	- 수변평야, 시가지, 북부산림, 남부산림 (4개)	- 산림, 수변, 가로
서산시	- 해안산업, 연안생태, 전원조망, 중심생활, 산림역사(5개)	- 녹지, 수변, 도로
당진시	- 해안교류, 청정문화, 푸른중심(3개)	- 녹지, 수변, 도로
서천군	- 수변관리, 생태보전, 생활중심, 청정자연(4개)	- 녹지, 수변, 도로
홍성군	-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비즈니스·행정경관, 특화산업경관, 친환경 농촌테마경관(5개)	- 역사, 녹지, 수변, 발전, 교통
태안군	- 청정해안, 생태환경보전, 농어촌경관, 도시경관(4개)	- 녹지, 해안, 가로

1.2 해안경관자원(거점)과 조망점

1) 경관거점

경관거점은 일반적으로 경관자원조사, 주민의식조사, 관련계획분석을 통해 지역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조망점은 경관구조, 가시권분석, 조망대상과의 시점장 분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도 및 7개 시·군의 경관거점의 유형, 해안경관거점(자원) 현황, 조망점 현황을 분석하였다.²⁶⁾

시·군 해안경관거점의 눈에 띄는 특징은 경관자원현황에서 언급된 자원들이 대부분 경관거점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경관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연구나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관자원 중 중요자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는 우수한 경관자원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거점과 조망점을 동시에 분석한 이유는 이 두 점적 자원이 시·군 경관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는 조망점의 위치를 GPS 좌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경관자원, 경관거점, 조망대상, 조망점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관거점 유형은 도와 시·군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군은 일반적으로 자연, 역사문화, 상징, 진입(관문)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도는 자연경관거점과 상징경관거점이 없고 산업단지경관거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령시와 서천군은 경관관점 안에 해안경관 거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은 해안경관거점(자원)이 각 유형에 분산되어 있다.

▼ [표 5-3] 도·시·군의 경관거점 유형

구분	경관거점 유형	해안경관거점유무	해안조망점
도	- 역사문화관광, 산업단지, 진입, 도시	-	-
보령시	- 산림, 해안, 호수, 섬, 도시지역, 역사문화, 항구, 관문	○	○
아산시	- 전통역사, 도시문화, 관문활동	-	○
서산시	- 자연, 역사문화, 상징, 진입	-	○
당진시	- 자연, 역사문화, 상징, 관문	-	○
서천군	- 녹지, 수변, 역사문화, 상징, 관문	○	○
홍성군	- 자연, 역사문화, 사회문화, 진입	-	○
태안군	- 자연, 역사문화, 상징, 관문	-	○

2) 조망점

다음으로 7개 시·군 해안지역 조망점을 살펴보았다. 도 경관계획에서는 조망점을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군 경관계획에서 해안지역에 총 53개소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조망점인 49개소가 경관자원에 위치하고 있다. 항구(포구)에 21개소, 담수호(방조제)에 11개소가 선정되어 있다. 조망점의 65%가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항구와 방조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망대상을 선정하고 조망점을 선정하는 경우와 가시권이 넓고 양호한 경관거점에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군별로 조망점 선정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산시는 경관유형별로 조망점을 선정하였고, 당진시는 중점관리조망점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홍성군은 조망점의 유형을 해안, 시가지, 역사문화, 수변, 진입부등으로 구분하였다. 태안군은 전체 21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는데 대부분 서해안을 대상으로 한 조망점이다. 보령시는 조망대상과 조망점을 별도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 5-4] 시 · 군 경관계획상의 해안 조망점

지자체	해안지역 조망점	개소
보령시	- 시진입부, 충청수영성, 갈매못 순교성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독산해수욕장	6
아산시	- 아산방조제, 삽교방조제, 국도39호선 진입거점	3
서산시	- 간월암, 대산 · 대죽산업단지, 황금산, 간월호, 삼길포항	5
당진시	- 조망점 : 도비도농어촌 휴양단지, 왜목마을, 용무지, 장고항, 성구미포구, 안섬휴양공원, 한진포구, 음섬포구, 맷돌포, 삽교호 관광지 - 중점관리조망점 : 대호방조제, 석문호준공기념탑, 삽교방조제	13
서천군	- 부사방조제, 홍원항, 마량리 동백나무숲, 비인항, 월하성, 다사포구, 송석항, 장항송림, 장항항, 금강하구둑, 춘장대 해수욕장	11
홍성군	- 남당항, 천수만, 서산A지구 방조제	3
태안군	- 만대항, 이원방조제, 학암포, 신두리 해안사구, 만리포항, 안흥외항, 몽산포, 마검포, 백사장항, 꽃지해수욕장, 영목항, 황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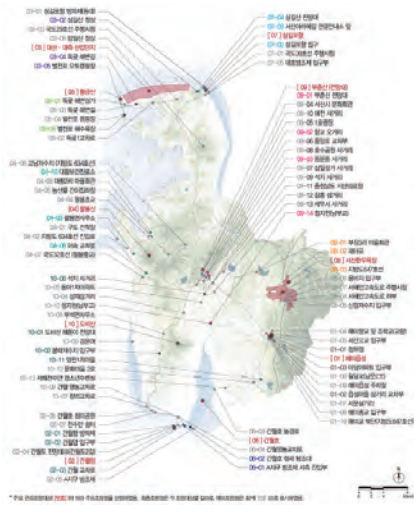
자료 : 보령시, 2011, p.223

▲ [그림 5-21] 보령시 조망점



자료 : 아산시, 2012, p.79

▲ [그림 5-22] 아산시 조망점



자료 : 서산시, 2014b, p.73

▲ [그림 5-23] 서산시 조망점



자료 : 당진시, 2012, p.41

▲ [그림 5-24] 당진시 조망점



자료 : 서천군, 2015, p.41

▲ [그림 5-25] 서천군 조망점



자료 : 태안군, 2015b, p.46

▲ [그림 5-27] 태안군 조망점

자료 : 홍성군, 2016, p.39

▲ [그림 5-26] 홍성군 조망점

3) 해안경관자원

다음으로 도·시·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해안경관자원을 살펴보았다. 경관자원과 경관거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계획에서 언급하는 해안 경관자원을 검토하고 도·시·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7개 시·군의 해안경관거점(자원)을 크게 지역자원, 인공자원, 자연자원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

지역자원은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안면도,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로 도 경관계획에서 자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고 시·군 경관계획에서는 이 지역에 위치한 인공 및 자연자원을 지정하고 있다. 인공자원은 항구, 방조제, 어촌마을, 기반시설, 산단, 도로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원이고 자연자원은 해수욕장, 보호지역, 갯벌 등으로 구분된다.

▼ [표 5-5] 충남 해안경관자원의 유형

유형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합계
지역자원		1	2			1		3(중복제외)
인공자원								
항구(포구)	3		8	9	5	3	30	58
담수호(방조제)	5	2	3	3	2	2	2	19
어촌마을	1			2	2	1		6
역사문화재	1						3	4
기반시설				1	3			4
산업단지		1	1	3	1			6
도로		1		2	1		1	5
소계	10	4	12	20	14	6	36	102
자연자원								
해수욕장(해안)	5		1		4		32	42
보호지역	1						2	3
갯벌		1	3					4
염전			4					4
산림(녹지)			1				2	3
지형(지질)							1	1
소계	6	1	9		4		37	57
합계	16	6	23	20	18	7	73	162

도 경관자원과 시·군 경관자원의 상호 관련성, 조망점으로 지정된 경관자원을 검토하였다. 시·군은 기본적으로 도 경관계획상의 경관자원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경관자원을 지정하고 있다. 도 경관자원이 시·군 경관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경관자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개 시·군 모두 중요한 경관거점을 조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 차원의 조망점, 조망계획이 경관계획 내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경관계획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군 경관자원을 유형화하고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개 시·군 경관계획 상의 경관자원 수는 162개소이며 인공자원이 102개소, 자연자원 57개소이다. 인공자원 중 항구(포구)가 5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수호(방조제)가 19개소이다. 어촌마을, 역사문화재, 기반시설, 산업단지, 도로는 4-6개소 정도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이 전체 자연자원 57개소 중 42개소로 전체 자연자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항구와 해수욕장이 전체 경관자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것이 특징이다.

시·군별 경관자원 분포와 특성을 보면, 태안군이 73개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다. 당진시와 홍성군은 자연경관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군 경관계획 상의 조망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시·군의 해안지역 조망점은 53개소이고 조망점으로 지정된 경관자원은 49개소로 나타났다. 즉, 조망점과 경관자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구(포구)에 위치한 조망점이 21개소 가장 많고 담수호(방조제)는 전체 19개소 중 11개소가 조망점으로 선정되어 있다. 방조제 도로에서 해안지역과 담수호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이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욕장 42개소 중 9개소가 조망점으로 선정되어 있어 방조제에 비해 조망경관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 [표 5-6] 충남 해안경관자원 내 조망점 유형

유형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합계
인공 자원	항구(포구)		2	8	5	1	5	21
	담수호(방조제)	2	1	3	2	2	1	11
	어촌마을			1	2			3
	역사문화재	1						1
	산업단지		1					1
	도로		1					1
자연 자원	해수욕장(해안)	3			2		4	9
	보호지역						1	1
	산림(녹지)			1				1
합계	4	3	5	12	11	3	11	49

▼ [표 5-7] 보령시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보령시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지역자원	원산도	○		
	천수만	○		
인공 자원	항구 (포구)	대천항(대천지구)	○	
		보령항	○	
		무창포항	○	
		오천항	○	
		보령호(방조제)	○	
	담수호 (방조제)	대천방조제	○	
		남포방조제	○	
		부사방조제	○	
		금오방조제	○	
	어촌마을	무창포마을(바닷길)	○	
	도로	대천5동 해안로	○	
	역사문화재	갈매못 순교성지	○	○
		대천해수욕장(해안도로)	○	○
자연 자원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	○
		독산해수욕장	○	○
		용두해수욕장	○	
		장안해수욕장	○	
		보호지역 등	○	
	소항사구			

▼ [표 5-8] 아산시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아산시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지역자원	아산만	○	○	
인공 자원	담수호 (방조제)	아산호 (아산만 방조제)	○	○
		삽교호(삽교천 방조제)	○	○
	산단	아산 인주산업단지	○	
	도로	국도 39호선 진입거점	○	○
자연자원	갯벌	걸매리 갯벌	○	

▼ [표 5-9] 서산시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서산시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지역자원	가로림만	○	○	
	천수만 (철새도래지)	○	○	
인공 자원	대산항	○	○	
	항구 (포구)	삼길포항(삼길포지구)	○	○
		간월도(항)	○	○
		포구 5개소 (창리, 벌말, 도성리, 왕산포(중왕리), 구도)	○	
		부남호(B지구 방조제)	○	
	담수호 (방조제)	간월호(A지구 방조제)	○	○
		대호지	○	
	산단	대산대죽일반산업단지	○	○
자연 자원	해수욕장	벌천포 해수욕장	○	
	갯벌	갯벌 3개소 (도성리, 중왕리 갯벌, 호리)	○	
	염전	염전 4개소 (금현염전, 통포염전, 대오염전, 중왕염전)	○	
	산림	황금산	○	○

▼ [표 5-10] 당진시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당진시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항구 (포구)	평택·당진항	○		
	왜목항	○	○	
	장고항	○	○	○
	도비도(항) (농어촌 해양단지)	○	○	○
	6개 소규모 포구 (용무치, 성구미, 한진, 안섬, 음성, 맏돌)		○	○
인공 자원	삽교호(방조제)	○	○	○
	석문호(방조제)	○	○	○
	대호방조제	○	○	○
	왜목마을	○	○	○
	장고항 실치마을		○	
기반시설	서해대교	○		
	당진화력발전소		○	
산단	석문국가산업단지(해안산업단지)	○	○	
	송산일반산업단지(해안산업단지)	○	○	
	아산국가산업단지(해안산업단지)	○	○	
도로	도로경관(국도 38호선 대산진입)		○	
	도로경관(국도 34호선 아산진입)		○	

▼ [표 5-11] 서천군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서천군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인공 자원	항구 (포구)	홍원항	○	○
		장항항	○	○
		비인항	○	○
		송석항	○	○
		다사포구	○	○
	담수호 (방조제)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	○	○
		부사호(방조제)	○	○
	어촌마을	마량리(해돋이마을, 동백나무숲)	○	○
		월하성마을(서면 월호리)	○	○
	기반시설	장항제련소	○	
		장군대교	○	
		생물자원관주변지구	○	
	산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	
	도로	비인만 해안도로	○	
		공암남촌길	○	
자연 자원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	○
		송림산림욕장	○	○
		비인해수욕장	○	
		띠섬목 해수욕장	○	

▼ [표 5-12] 홍성군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홍성군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지역자원	천수만	○	○	○
인공 자원	항구 (포구)	○	○	○
	남당지구(남당항)	○	○	○
	궁리항	○	○	
	어사(포구)		○	
	담수호 (방조제)		○	○
	홍성호(방조제)		○	
	어촌마을		○	
	속동갯벌마을(속동 전망대)			

▼ [표 5-13] 태안군 해안경관자원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태안군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지역자원	안면도	○		
	태안해안국립공원	○		
인공 자원	항구 (포구)			
	태안항(무역항)	○	○	
	영목항(지방어항)	○	○	○
	천리포항(지방어항)	○	○	
	안흥항(국가어항)		○	○
	만리포항(지방어항)		○	○
	백사장항(지방어항)		○	○
	만대항(지방어항)		○	○
	모항항(국가어항)		○	
	지방어항 6개소 (마검포, 어은돌,몽산포, 학암포,방포, 통개)		○	
	의항항		○	
	드르니항		○	
	구매항		○	
	어촌정주어항 13개소		○	

유형	경관거점(자원)	충남 경관계획	태안군 경관계획	
			경관거점	조망점
인공 자원	담수호(방조제)	부남호(철새도래지)	○	
		이원 방조제	○	○
	역사문화재	독살	○	
		소근진성	○	
		안흥성	◎	
	도로	방포해수욕장 해안도로	○	
자연 자원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	
		의항리 해수욕장	○	
		구름포 해수욕장	○	
		면동 해수욕장	○	
		백리포 해수욕장	○	
		파도리 해수욕장	○	
		마검포 해수욕장	○	○
		꽃지해수욕장(지구)	○	○
		학암포 해수욕장	○	○
		몽산포 해수욕장	○	○
	해수욕장(해안) 22개소		○	
	보호지역 등	신두리 사구(해안)	○	○
		두웅 습지	○	
	산림(녹지)	천리포 수목원	○	
		모감주나무군락	○	
	지형(지질)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	

어촌정주어항 13개소 : 황도, 황포, 대야도, 정산포, 탄개포, 개목, 연포, 의점포, 가경주, 고남, 당암, 청산, 황골해수욕장(해안)

해수욕장 22개소 : 신두리, 백사장, 바람아래, 장돌, 장삼포, 연포, 갈음이, 청포대, 달산포, 어은돌, 방주골, 천리포, 통개, 빗개, 셋별,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 구례포, 꾸지나무골, 사목

1.3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관리범위

해안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법 개정 전의 경관중점관리구역까지 포함하여 총 2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태안군이 9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서천군이 5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서해안산업단지로 2개소로 명확한 경계설정이 없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시·군 경관계획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면적과 개소에서 차이가 있다. 도와 시·군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중복되고 있다. 도·시·군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관리수단 및 구역경계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 [표 5-14] 시·군 경관계획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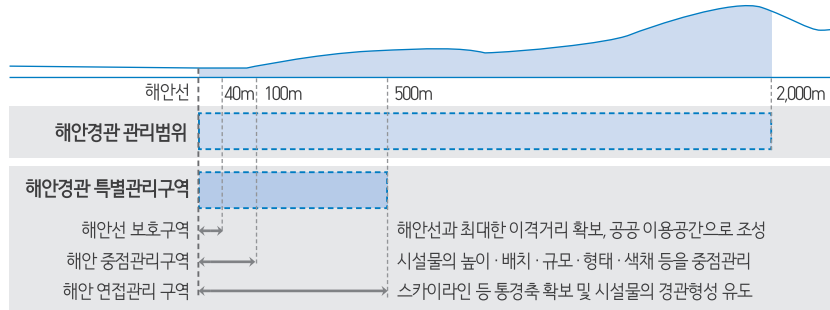
구분	개소	중점경관관리구역
충남도	2	태안해안국립공원, 서해안산업단지
보령시	3	대천해안, 충청수영성 주변, 무창포
아산시	1	아산만
서산시	2	연안, 해안(가로림만)
당진시	2	석문국가산업단지, 삽교호관광지
서천군	5	춘장대·비인항 일원, 비인만 해안도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제련소
홍성군	1	서부임해
태안군	9	만대항, 학암포, 신두리해안사구, 만리포, 신진도항, 안흥성, 백사장항, 꽃지방포항, 영목항

일반적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해 경관자원이 밀집된 구역을 선정하고 있다. 설정기준으로 설문조사, 조망점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경계 설정을 위해 가시권분석, 표고분석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시·군 계획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 및 관리수단은 일반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나 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구역 설정방식이나 관리수단에서 도·시·군간의 큰 차이는 없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에서 가장 큰 차이는 구역 경계 설정방식이다. 구역 경계 설정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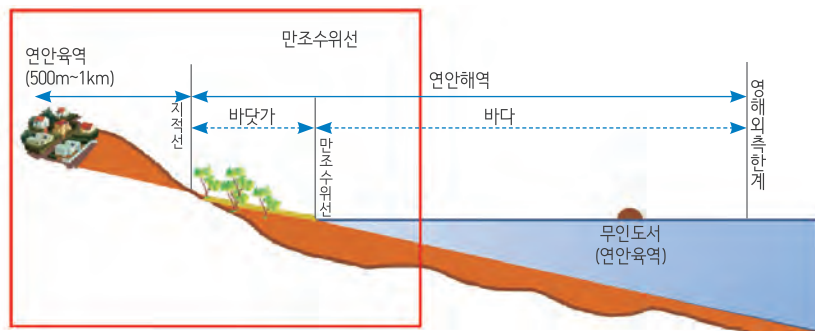
첫째, 국토해양부의 '해양경관관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보호구역(40m), 중점관리구역(100m), 연접관리구역(500m), 해안경관 관리범위(2,000m)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아산시와 보령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 :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그림 5-28] 해안경관관리범위

둘째,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구분을 활용하여 연안육역에 해당하는 500m까지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는데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바다를 의미한다. 바닷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며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서산시와 홍성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 : 최영국 외, 2012, p.5

▲ [그림 5-29] 연안육역, 연안해역

마지막으로, 경관자원과 지역분석에 기반하여 가로단위로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 : 당진시, 2012, p.138

▲ [그림 5-30] 가로단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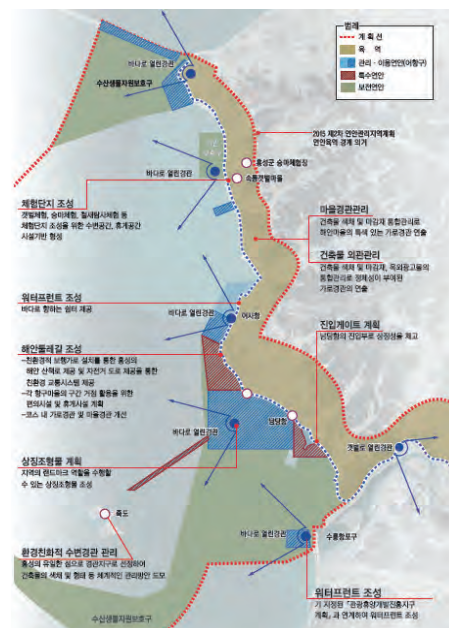
자료 : 서산시, 2014b, p.164

▲ [그림 5-31] 연안육역 개념에 따른 관리범위 설정



자료 : 보령시, 2011, p.161

▲ [그림 5-32]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범위 설정



자료 : 홍성군, 2016, p.153

▲ [그림 5-33] 연안육역 개념에 따른 관리
범위 설정

▼ [표 5-15] 시 · 군 경관계획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리수단

지자체	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수단	구역경계
도	2	- 태안해안국립공원 - 서해안 산업단지	- 관리방향 및 사업제시 - 체크리스트 제시	
보령시	3	- 대천해안 - 충청수영성 주변 - 무창포	- 계획방향 제시 - 사업제시 - 경관설계지침 제시	- 보호구역(40m) - 중점관리구역(100m) - 연접관리구역(500m)
아산시	1	- 아산만	- 관리방향 및 사업제시 - 경관설계지침 제시	- 보호구역(40m) - 중점관리구역(100m) - 연접관리구역(500m)
서산시	2	- 연안 - 해안(가로림만)	- 관리계획방향 제시 - 설계지침 제시 - 체크리스트 제시	- 연안해역 - 연안육역(500m)
당진시	2	- 석문국가산업단지 - 삽교호관광지	- 관리방향 제시 - 경관지침 제시	- 도면화(가로단위경계)
서천군	5	- 춘장대, 비인항 일원 - 비인만 해안도로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항제련소	- 기본방향 제시 - 가이드라인 제시	- 도면화(가로단위경계)
홍성군	1	- 서부임해	- 추진전략 제시 - 경관사업 제시 - 가이드라인 제시 - 체크리스트 제시	- 연안해역 - 연안육역(500m)
태안군	9	- 만대항 - 학암포 - 신두리해안사구 - 만리포 - 신진도항 - 안흥성 - 백사장항 - 꽃지방포항 - 영목항	- 관리방향 제시 - 경관설계지침 제시 - 가이드라인 제시	- 도면화(가로단위경계)

1.4 해안경관관리 수단

경관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통한 관리수단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 경관계획은 가이드라인과 사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의 한 제이자 타 관련법규와의 관계 정립이 미약한 우리나라 경관관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경관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수단은 경관심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도 및 7개 시·군의 해안경관관련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사업, 심의대상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도·시·군 모두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정을 전후로 가이드라인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2013년 이전 계획의 경우 경관구성요소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 수립된 계획상의 지침들은 구성요소외에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 구역별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지역 경관관리 지침은 해안권역, 해안축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해안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침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해안지역에 비해 관리방향이 설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경관구성요소별 지침은 대부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기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간선도로와 조망경관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태안군과 서천군의 경우 가로경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령시는 공통지침과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령시는 타 시·군과 달리 생태구조물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태안군과 서천군이 유일하게 농어촌경관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침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안지역 경관관리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시·군이 해안 및 하천변 경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해안지역에 초점을 맞춘 경관심의대상은 없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의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의 경우 부분적으로 건축물은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이상인 경우 심의가 가능하다.

▼ [표 5-16] 도 및 시 · 군의 가이드라인과 심의대상

구분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 유형	조례 · 심의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권역별 지침(5개 권역) - 경관축별 지침(4개 지침) - 구성요소별 지침(6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수변경관 형성, 정비사업)
보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별 지침 - 경관설계 공통지침(5개 지침) - 경관설계 특정지침(3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 경관심의(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아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별 지침(6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별 지침(6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당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별 지침(8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경관 지침 - 권역 · 축 · 거점 지침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침 - 구성요소별 지침(4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 경관심의(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 축 · 거점 지침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침 - 구성요소별 지침(6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 경관사업(농산어촌)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경관 지침 - 권역 · 축 · 거점 지침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침 - 구성요소별 지침(4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해안 및 하천변) - 경관사업(농산어촌) - 경관심의(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2. 충남 경관자원 관련 개발 · 보전 정책과 사업

도 및 시 · 군 경관계획 상의 경관자원에 대한 국가 및 충남계획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였다. 경관자원을 바라보는 상위계획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도 및 시 · 군 경관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크게 개발, 보전,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자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항구와 어항은 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법정보호구역, 갯벌, 담수호 등은 보전 중심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가로림만, 천수만, 태안해안국립공원, 신두리사구 등은 개발과 보전의 정책이 공존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계획 상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경관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위계획에서는 주요 자원이나 경관계획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항만과 어항은 항만기본계획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며 적용되는 정책과 사업이 다르나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내용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모든 항구와 어항이 동일한 경관관리지침과 수단으로 관리되고 있다. 상위계획 내용의 수용을 통해 경관계획과 관리 방법론이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관계획의 경관자원별 관리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상위계획의 내용이 경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나 경관계획들이 기본적으로 개발을 전제로 한 경관설계지침, 경관사업으로 구성되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 경관계획의 취지에 맞게 경관자원별로 보전, 형성(개발),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상위계획 분석과 경관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형성, 관리 방향설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개발지향의 경관자원

국가계획 중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등이 해안지역의 대표적인 개발정책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도 차원의 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항만발전 종합계획,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등이 국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후보지),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충남 지정 관광지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항만, 항구, 어항들은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삽교호, 왜목마을, 간월도,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장항제련소, 춘장대 해수욕장이 국가 및 충남계획에서 중요한 개발대상지로 접근되고 있다.

▼ [표 5-17] 개발지향의 충남 해안경관자원

경관자원	방식	국가 및 충남계획	지자체
삽교호(방조제)	- 연계거점 개발 - 충남 지정관광지 - 삽교호 해양친수공간	-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아산, 당진
평택·당진항	- 국가관리무역항(항만개발)	- 국토종합계획 - 전국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당진
왜목마을	- 전략사업 - 충남 지정관광지 - 해양레저타운	-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당진
왜목항, 장고항	- 마리나항만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당진
간월도(항)	- 충남 지정관광지 - 마리나항만 후보지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서산
대산항	- 국가관리무역항(항만개발) - 마리나항만 후보지	- 국토종합계획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서산
삼길포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관광미항 - 다기능 어항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산
태안항	- 지방관리 무역항 - 에너지산업지원항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태안
안흥항	- 국제관광거점(다기능항)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관광미항, 관광특구 등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충남 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태안

경관자원	방식	국가 및 충남계획	지자체
모항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태안
남당항	- 국제관광거점, 연계거점 - 관광미항 - 충남 지정관광지 - 연안정비사업 - 마리나항만 후보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권관광개발계획,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홍성
원산도	- 국제관광거점 - 중심거점(해양레저관광)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Pine Coast 관광거점 - 테마랜드, 마리나항만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충남 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보령
대천항	- 중심거점 개발 - 지방관리 연안항 - 관광·어항 중심항	-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보령
보령항	- 지방관리 무역항 - 관광미항 - 에너지 산업지원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항만발전 종합계획,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보령
무창포항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보령
오천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보령
대천해수욕장	- 국제관광거점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 충남 지정관광지 -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 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보령
홍원항	- 국제관광거점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다기능어항) - 관광미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충남 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서천
장항항	- 국가관리무역항 - 지역생활지원항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천

경관자원	방식	국가 및 충남계획	지자체
비인항	- 지방관리 연안항 - 복합다기능 어항	- 전국 항만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천
장항제련소	- 복합문화공간 조성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충남 종합계획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 연계거점 개발 - 충남 지정관광지 - 명품해수욕장	-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천

2.2 보전지향의 경관자원

법정보호구역인 두웅습지, 소항사구, 송림갯벌이나 담수호인 간월호, 부남호 등이 보전적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관자원의 보전대책은 개발사업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내용이 없어 경관계획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연안지역 관리계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남호와 간월호는 연안실태조사에서 우수연안경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며 부남호는 충남의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복원 가능지이기도 하다.

▼ [표 5-18] 보전지향의 충남 해안경관자원

경관자원	방식	국가 및 충남계획	지자체
간월호	- 우수연안경관지역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실태조사)	서산, 태안
부남호	- 우수연안경관지역 - 생태복원가능지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실태조사) -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서산, 홍성
두웅습지	- 습지보호지역 - 연안습지 환경개선	- 습지보전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태안
백리포, 파도리, 몽산포 해수욕장	- 우수연안경관지역(연안실태조사)	- 연안통합관리계획	태안
소항사구	- 생태경관보전지역 - 환경 및 생태가치 제고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보령
송림갯벌	- 습지보호지역 - 환경 및 생태가치 제고 - 생태체험 학습장	- 습지보전 기본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천

2.3 개발 vs 보전관점이 공존하는 경관자원

국가 및 충남계획을 분석한 결과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태안해안국립공원(안면도), 만리포 해수욕장, 신두리사구 등은 개발과 보전 정책이 공존하는 경관자원으로 파악되었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국가계획)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충남도 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가로림만은 생태공원으로 천수만은 해양관광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안군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인 안면도는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 정책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만리포 해수욕장 역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생태복원 가능지로 지정되었다. 신두리사구 또한 천연기념물이자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표 5-19] 개발과 보전정책이 공존하는 충남 해안경관자원

경관자원	방식	국가 및 충남계획	지자체
아산만	- 도·시·군 통합관리	- 연안통합관리계획	아산, 당진
가로림만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해양습지생태공원 - 생태프로젝트	- 연안통합관리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산
천수만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수산자원보호구역 - Pine Coast 관광거점 - 관광휴양벨트	- 연안통합관리계획 - 충남 종합계획 -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서산, 태안, 홍성, 보령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 해양레저관광개발 - 국제관광거점 조성 - Pine Coast 관광거점 등 - 환경관광지구 조성 - 국립공원(깃대종) 보호 - 우수연안경관지역	- 관광개발기본계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충남 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종합, 관광개발, 해양수산계획 - 자연공원기본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 국제관광거점 - 연계거점개발 - Pine Coast 관광거점 - 충남 지정관광지 - 생태복원가능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충남 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태안
신두리 사구	- 국제관광거점 - 전략사업, 생태공원 - 해양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 생태복원가능지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충남 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 충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태안

2.4 시·군별 경관자원의 관리방향

▼ [표 5-20] 보령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거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원산도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중심거점 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해양레저관광개발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충남
	- Pine Coast 해양관광 거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 테마랜드 조성, 생동프로젝트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개발		
천수만	- 거점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국가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충남도)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		
	- Pine Coast 해양관광거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탐조코스 개발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대전항(대전지구)	- 중심거점 개발(거점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국가
	- 지방관리 연안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관광·여항 중심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5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보령항	- 지방관리 무역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관광미항 건설	충청남도 종합계획	
	- 에너지 산업지원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10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무창포항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마리나항만 개발, 여항보수보강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충남

경관거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오천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국가 다기능 어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보령호(방조제)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대천해수욕장 (해안도로)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명품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무창포 해수욕장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명품해수욕장 조성, 권역형 관광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용두해수욕장	- 경관감상형 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소항사구	- 생태경관보호지역		국가
	- 환경개선 및 생태가치 제고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표 5-21] 아산시 및 당진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아산만	- 아산만 관리체계 구축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 항만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평택·당진항	- 평택·당진항 녹색기술 지대 육성 - 환황해권 거점 항만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국가관리무역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수도권 및 중부권 물류 거점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당진항 관련 11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왜목항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장고항	- 마리나항만 개발 - 국가 다기능 어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도비도항	- 해중레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석문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 연계거점 개발(연계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국가
삽교호(방조제)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음성포구~삽교호 해양친수공간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석문호(방조제)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 전략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국가
왜목마을(해수욕장)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해양레저타운 조성, 권역형 관광 - 레저체험형 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표 5-22] 서산시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가로림만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충남도)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 생태공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생동프로젝트		
천수만	- 거점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국가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충남도)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		
	- Pine Coast 해양관광거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탐조코스 개발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대산항	- 항만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
	- 국가관리무역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대산항 국제관광프라자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 13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삼길포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관광미항 건설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국가 다기능 어항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어촌 마리나역 대상지		
간월도(항)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권역형 관광,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창리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해양생태체험장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개발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부남호(B지구 방조제)	- 우수연안경관지역(연안실태조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간월호(A지구 방조제)	- 우수연안경관지역(연안실태조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벌천포 해수욕장	- 경관감상형 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중리마을	- 어촌체험 관광마을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충남
삼길산	- 삼길산 전망타워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전략사업	충남

▼ [표 5-23] 서천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홍원항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다기능항)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 관광미항 건설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춘장대-홍원항 해상산책로 설치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국가 다기능 어항		
	- 마리나항만 개발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장항항	- 국가관리무역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지역생활 지원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2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비인항	- 지방관리 연안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 복합다기능 항만(정주+관광)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어항 재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 5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다사포구	- 어항 재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금강하구둑	- 금강하구 관리체계 구축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마량리	- 전락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국가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월하성마을	- 어촌마을, 어항 보수보강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어촌체험 관광마을	충청남도 어업 · 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장항제련소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춘장대 해수욕장	- 연계거점 개발(연계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국가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명품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송림갯벌	-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제2차 습지보전 기본계획	국가
	- 환경개선 및 생태가치 제고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송림갯벌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표 5-24] 홍성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자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천수만	- 거점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국가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충남도)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		
	- Pine Coast 해양관광거점 조성 - 탐조코스 개발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남당항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연계거점 개발(연계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 관광미항 건설	충청남도 종합계획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
	- 충남 연안정비사업 - 국가 다기능 어항 - 어항 마리나역 대상지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궁리항	- 바다 낚시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어사(포구)	- 바다 낚시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서산A지구 방조제	- 우수연안경관지역(연안실태조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홍성호(방조제)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 [표 5-25] 태안군 경관자원의 정책 방향

경관거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안면도	- 해양레저관광개발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
	- 중심거점 개발(거점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충남
	- Pine Coast 해양관광 거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관광지 개발, 생동프로젝트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태안해안국립공원	- 국립공원	자연공원 기본계획	국가
	- 국립공원 깃대종(매화마름, 표범장지뱀)		
	- 태안환경관광지구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태안기업도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
	- 연계거점 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Pine Coast 해양관광 거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태안항	- 지방관리 무역항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에너지 산업지원항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3개 과제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영목항	-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영목항 해양관광거점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어항보수보강		
천리포항	- 어항 보수보강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다기능항)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안흥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 관광미항 건설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 기본계획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전략사업계획	
	- 스토리텔링형 역사자원 발굴		
	- 국가 다기능 어항 추진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마리나항만 개발		
	- 어항 재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 마리나항만 후보지 (국가어항)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경관거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만리포항	- 어항 보수보강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모항항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어항 재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마검포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갈음이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부남호항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마리나항만 후보지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이원 방조제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어촌마을	- 어촌체험 관광마을	충청남도 어업 · 어촌 증장기 발전전략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연계거점 개발(연계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및 중간평가	
	- Pine Coast 해양관광 휴양거점 조성 (관광지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 충청남도 지정관광(단)지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만리포 해수욕장	- 명품해수욕장 조성, 권역형 관광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백리포 해수욕장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파도리 해수욕장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꽃지해수욕장 (지구)	- 충남 연안정비사업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 명품해수욕장 조성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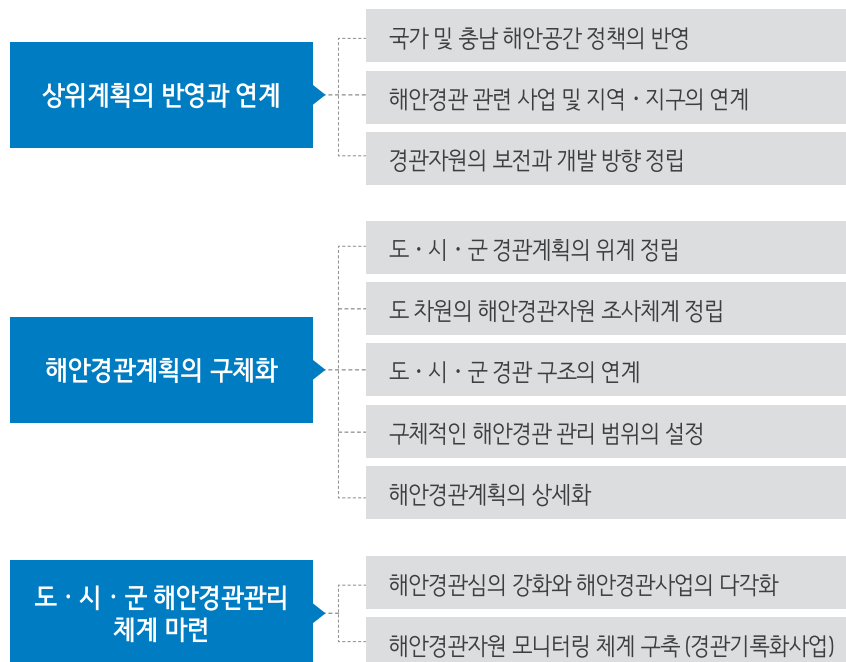
경관거점	정책 및 사업	계획	비고
몽산포 해수욕장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
신두리 해수욕장	- 레저체험형 해수욕장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방포해수욕장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백사장 해수욕장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충남
신두리 사구(해안)	- 충남 국제관광거점 조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가
	- 전략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 우수연안경관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해양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충남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충청남도 종합계획	
	- 태안해변길 산책로 조성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환경개선 및 생태가치 제고		
	- 생태복원 가능지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 방안	국가
	- 습지보호지역(내륙습지)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두웅 습지	- 연안습지 환경개선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남

VI.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해안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 계획, 규제, 사업 등을 고려 할 때 해안경관관리는 부서 간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나 행정 여건 상 쉽지 않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자 도구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관계획의 설득력과 실효성을 정책, 계획, 실천의 차원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정책적으로 보면 상위계획의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고 연계, 조정하는 경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관계획이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 동일한 내용과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경관관리 정책 부재와 관련이 깊다. 경관계획은 개발형 경관사업을 발굴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양 극단에서 균형 잡힌 경관관리정책을 구체화하고 타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를 정책적, 계획적,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0개의 과제를 정책, 계획, 실천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관계획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그림 6-1]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1. 상위계획의 반영과 연계 (정책적 측면)

1.1 국가 및 충남 해안공간 정책의 반영

실효성과 설득력 있는 해안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의 정책과 사업을 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경관관리 수단과 연계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해안지역과 관련된 국가 및 충남계획의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행사업과 관련된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발전계획, 어촌·어항발전계획, 수산업·발전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보전적 경관관리를 참고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습지보전기 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이 있다.

▼ [표 6-1] 상위계획의 해안공간 정책 방향

	계획	주요 과제
국가	국토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사구, 습지, 갯벌 등의 광역생태축 보전사업
	해양수산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연안정비사업의 생태친화성 강화■ 연안경관의 연속성 및 공유재 개념 도입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어촌지구(가칭) 설정)■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명품어촌어항 조성
	항만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유형(무역항, 연안항)별 관리
	어촌어항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어촌 그랜드디자인사업■ 어항 정비사업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생물 보호·복원
	연안통합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가로림만, 천수만, 아산만, 금강하구 등)■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주요 과제
국가	연안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습지보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호구역 관리 강화
	산지관리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림 및 도서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 해안방재림 보전을 통한 해안선 및 연안경관 보호
충남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항 활성화 ■ 관광미항 건설 ■ 광역생태축 보전 (연안정비 90개소) ■ 생태공원 조성 (창리, 천수만 간월호, 가로림만) ■ 서해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갯벌보호구역 지정 및 연안습지 관리
	해양수산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습지 환경개선 생태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웅습지, 서천갯벌, 소항사구, 신두리사구 ■ 시·군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연안정비사업 추진 (20개 지구) ■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별 개발행위 제한지역 설정 ■ 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 ■ 해안방재림 조성 및 관리 강화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습지구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항만발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7개항만 종합항만화
	환경보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생태적 산림자원 보전 ■ 연안생태계의 지역적·체계적 관리 ■ 중요 갯벌의 생태적 기능성 강화방안 마련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복원가능지 제시 ■ 복원대상지 제시 (보령호, 고파도)
	산지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 (해안방재림, 금강송, 철새도래지 등) ■ 핵심보전대상산지의 전용 억제 및 경관관리 ■ 해안림 보전과 연안관리에 역점

1.2 해안경관 관련 사업 및 지역·지구의 연계

지자체 경관관리의 실효성 저하는 경관관리부서의 예산, 인력, 권한 부족과 관련 깊다. 특히 중장기적인 경관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기 쉽지 않다. 직접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해안지역 경관변화에 영향을 주는 타 부처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관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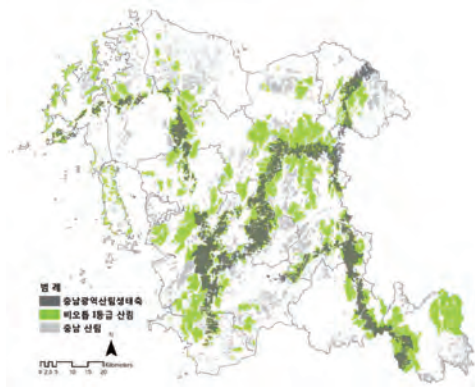
우리나라 행정체계 여건 상 쉽지 않으나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지역·지구 운용이나 실행계획을 경관관리 수단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안경관관리의 관련이 깊은 사업, 계획, 지역·지구 등은 아래와 같다.

▼ [표 6-2] 해안경관관리와 관련된 사업, 지역·지구, 계획

구분	내용	관련법 및 계획
사업	■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발전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 어촌체험마을, 명품어촌어항 조성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항만유형(무역항, 연안항)별 관리	항만기본계획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 그랜드디자인사업 ■ 어항 정비사업	어촌어항발전계획
	■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 해안선 보호구역 ■ 해안중점관리구역, 해안연접관리구역	해양경관관리가이드라인
	■ 연안용도해역제, 연안해역기능구 ■ 연안침식관리구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해양수산발전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해양보호구역	연안통합관리계획
	■ 어촌지구(가칭)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 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연안습지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관리	어업·어촌 중장기발전전략
	■ 해양관광진흥지구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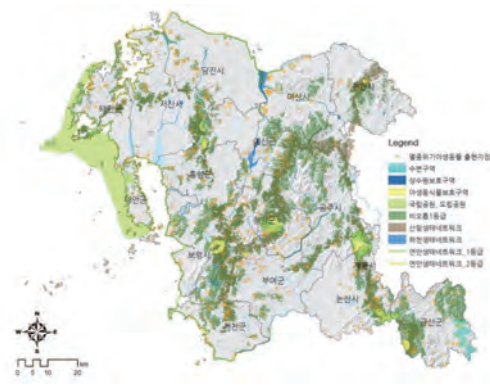
구분	내용	관련법 및 계획
관리(실행) 계획	■ 연안관리지역계획 (가로림만, 천수만, 아산만 등)	연안통합관리계획 충남 종합계획
	■ 시·군별 연안관리지역계획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또한 경관관리 시 검토가 필요한 공간범위로 환경보전지역, 광역산림생태축, 해안림, 핵심보전대상산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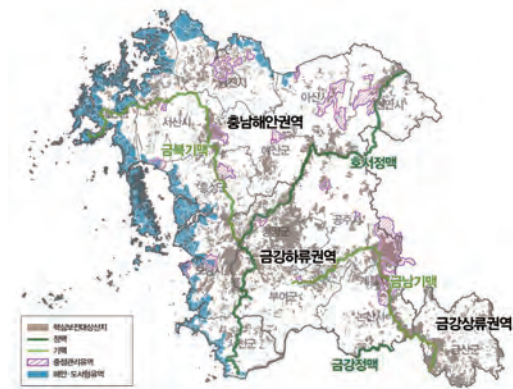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2015b, p.172

▲ [그림 6-2] 충남 광역산림생태축과 비오톱 1등급 산림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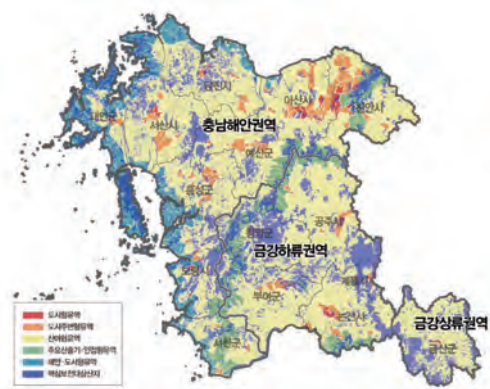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2015b, p.514

▲ [그림 6-3] 환경보전지역 현황



자료 : 충청남도, 2013b, p.74

▲ [그림 6-4] 충남 해안림 관리방식



자료 : 충청남도, 2013b, p.71

▲ [그림 6-5] 충남 핵심보전대상산지 분포

1.3 경관자원의 보전과 개발 방향 정립

상위계획을 분석하여 충남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관자원의 보전 및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방향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개발지향의 계획이 많고 경관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지리적, 광역공간구조의 틀에서 경관자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도·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상위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장소·공간기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경관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과 보전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자원이나 지역의 경우 주도면밀한 경관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개발지향 계획과 보전중심 계획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 [표 6-3] 국가 및 충남계획의 경관자원 관리방향

구분	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 태안항, 안흥항, 대천항, 보령항, 비인항 ■ 왜목항, 장고항, 삼길포항, 모항항, 남당항, 무창포항, 오천항, 홍원항 ■ 삽교호, 왜목마을, 간월도,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장항제련소, 춘장대 해수욕장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구역 : 태안해안국립공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아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삽교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소항사구),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모감주나무 군락, 마량리 동백나무숲), 습지보호지역(두웅습지, 서천갯벌),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 간월호, 부남호, 백리포, 파도리, 몽산포
개발 vs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태안해안국립공원(안면도), 만리포 해수욕장, 신두리사구

2. 해안경관계획의 구체화 (계획적 측면)

경관관리의 기반은 경관계획이나 현재 도 및 7개 시·군 모두 해안경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경관계획 내 해안경관관리 내용을 확대하거나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충남 해안지역을 총괄하는 해안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기도 한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해안지역 경관계획의 체계화 및 구체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도·시·군 경관계획의 위계 정립

현재 도·시·군 경관계획은 내용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경관계획의 경직성에 기인하나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 경관계획은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관리는 시·군 경관계획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경관계획에서는 하나의 시·군에서 경관관리가 어려운 대규모 자원이나 광역적인 경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지침,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 충남 경관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 경관계획 => 시·군 경관계획 => 도 경관계획의 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2.2 도 차원의 해안경관자원 조사체계 정립

도·시·군 경관계획 분석 결과, 경관자원조사 방법론이 모호하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효율성과 도 경관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방법론이 필요하다. 상위계획이나 경관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정보호구역이 경관자원, 경관거점에서 누락되기도 하였다.

도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 조사 체계(방법론)을 제시하고 시·군 경관계획은 이를 준용하여 조사한다면 경관구조(거점, 축, 권역)의 설정과 유형별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도·시·군 경관구조(권역, 축)의 연계

경관구조인 경관권역과 경관축의 구분은 기본계획과 설계지침(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근거와 기준이 되므로 경관계획에서 중요하다. 현재 도·시·군 경관구조의 계획과 지침은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 향후 수립되는 도 경관계획에서 연계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도·시·군 경관권역의 연계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 첫째, 시·군 경관권역을 수용한 도 차원의 경관권역 구분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해안경관권역 구분은 용이하나 내륙지역 경관권역 구분이 쉽지 않다. 둘째, 도 차원의 세분화 된 경관권역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경관관리의 최종주체가 시·군임을 고려할 때 도와 시·군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각 계획의 시점 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도 경관계획에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에 근거한 도식적인 권역구분을 제안하기 보다 시·군 경관권역 구분의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광역

도 차원의 권역구분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관권역과 동일하게 경관축도 설계지침의 기준이 되므로 구간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²⁷⁾ 경관축의 설정방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관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선적인 경관축의 경우 경관특성의 동질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4 구체적인 해안경관 관리범위(중점경관관리범위)의 설정

도 경관계획에서 해안경관관리범위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시·군 경관계획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활용되고 있어 시·군간 심의대상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도 차원의 해안경관관리범위 설정 근거가 없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경관법에서는 해안경관 관리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준용되는 규정은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²⁸⁾과 연안관리법상의 연안육역 규정이다.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범위를 해안선으로부터 2km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범위 중 500m 이내는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중점관리구역(100m), 해안연접관리구역(500m)을 설정하고 구역별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도 및 7개 시·군 경관계획 분석 결과, 해안경관관리범위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2km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연안육역 개념을 적용하여 500m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가로단위(블록)로 설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27) 경관계획 시 축과 축, 축과 경관자원의 교차점은 경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는데, 경관축의 범위 설정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경관거점은 자원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특히 경관계획 범위가 넓은 도 차원의 경관계획에서 두드러진다.

2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토해양부 훈령 495호)

가로단위로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명쾌하나 경계 기준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연안관리법이 나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분은 근거법이 있어 적용이 용이하나 불규칙적인 토지이용과 토지피복을 나타내는 해안지역에서 거리단위 구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안육역 개념은 연안관리법상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준용되는 개념이므로 경관계획과 연안관리계획의 상호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5 해안경관계획의 상세화(조망계획,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개발)

현재 해안지역은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유형이나 권역의 하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에서 해안의 중요성이나 범위를 감안할 때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계획적, 사업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경관계획 내 해안경관관리 내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안경관계획(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해안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도 차원의 해안조망경관계획과 조망점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조망점을 경관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도 · 시 · 군 해안경관관리 체계 마련 (실천적 측면)

3.1 해안경관심의 강화와 해안경관사업의 다각화

현재 충남의 실질적인 해안경관관리수단은 경관심의와 경관사업으로 볼 수 있다. 경관심의는 경관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한정되는데 도 및 시 · 군 조례 분석 결과,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를 고려한 별도의 심의대상 규정은 없다. 단지 해안지역에 위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일부 사업들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 뿐이다. 도 · 시 · 군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해안지역 경관관리가 가능한 심의 대상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명확하게 도 심의와 시 · 군 심의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은 대부분 도 경관사업(공공디자인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련계획과 사업들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해안경관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해안지역은 도 · 시 · 군 경관관리부서 단독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해양수산, 관광부서와 연계한 경관관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3.2 해안경관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경관기록화사업)

경관계획과 관리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경관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이다. 다양한 사업과 인위적인 개발의 영향으로 해안선과 해안의 경관자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관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므로 충실한 경관자원조사를 통해 경관현황과 변화 실태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관계획 수립기간이 짧으므로 주기적인 경관자원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경관사업의 유형으로 도입된 경관기록화사업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중요한 경관자원의 변화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축적된 자료를 보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VII. 결론

서해안 지역과 해안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안개발의 범위와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토지이용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안공간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해안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경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안지역은 인공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도시지역과 달리 자연적인 요소가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해안경관관리는 도시지역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자연자원의 보전적 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명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해안경관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의 실행력이 담보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안경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충남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해 도 및 시·군 해안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안경관관리의 주요 과제와 경관계획 수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안경관관리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7개 시·군 해안현황 및 경관특성을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충남도 및 시·군 경관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해안지역 관련 국가 및 충남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를 정책적, 계획적,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10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적으로는 국가 및 충남 해안관련 계획의 공간 정책을 반영하고, 해안경관 관련 사업 및 지역·지구와의 연계, 경관자원의 보전과 개발방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상위계획의 정책과 사업을 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경관관리 수단과 연계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시·군 기본경관계획 내 해안경관관리 내용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충남 해안지역을 총괄하는 해안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기도 한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군 경관계획의 역할과 위계 정립, 도 차원의 해안경관자원 조사체계 정립, 도·시·군 경관구조의 연계, 구체적인 해안경관 관리범위(중점경관관리범위)의 설정, 해안경관계획의 상세화(조망계획,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관관리의 실천적 과제로는 해안경관심의 강화와 해안경관사업의 다각화, 해안경관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경관기록화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안경관관리 과제를 도 및 시·군의 해안경관계획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관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1-2020)
-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5-2019)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립해양조사원 (2014),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2017),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201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2011-2020)
- 국토교통부 (2015),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15-2019)
- 국토교통부 (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2011-2021)
- 국토해양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김경인, 안동만, 김철환, 윤상원, 이태근, 송창호, 조성삼, 정준영, 박희진, 정설경, 한선영 (2011),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 김경태, 이인배, 권미정 (2016) 충남 해수욕장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 당진시 (2012),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문화관광부 (200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12-2021)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 박창석, 노백호, 정재현 외 (2008),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보령시 (2011),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 산림청 (2013),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 서산시 (2014a), 서산시 경관계획

- 서산시 (2014b), 서산시 경관계획 관련도면집
- 서수정, 이상민, 진태승, 이승현, 임강륜, 신영도, 최교식, 김주경 (2011),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서천군 (2015), 서천군 경관계획
- 아산시 (2012),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 염돈민, 안건혁, 온영태, 류종현, 이재욱, 정우철, 장정룡, 심교언, 권오상, 최종석, 강봉준, 조용진, 김보미, 박상현, 최선주 (2001),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원도환동해출장소
- 온영태, 최선주, 이재욱, 심교언, 조용진, 안내영 (2002),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 윤상호, 이종훈, 홍장원, 박상우 (2003),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충훈 (2015), 충남의 미항조성을 위한 경관분석 및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2018)
- 차주영, 엄운진, 변혜진, 권오선, 이현주, 김지수 (2010), 해안경관 조망점 조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최영국, 박종순, 엄기철, 조원철, 최지연, 이문숙, 정지호, 백경진 (2012),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최지연, 박수진, 육근형, 장정인, 최희정, 정지호 (2011),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충청남도 (2012a),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2-2020)
- 충청남도 (2012b),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 충청남도 (2013a),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 충청남도 (2013b),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2014-2017)
- 충청남도 (2013c),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 충청남도 (2014a), 충청남도 발전계획
- 충청남도 (2014b),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 충청남도 (2015a),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 (2015b),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충청남도 (2015c),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2016a),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충청남도 (2016b),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

충청남도 (2016c), 제56회 충남통계연보

충청남도 (2017),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태안군 (2015a), 태안군 경관계획

태안군 (2015b), 태안군 경관계획 관련도면집

해양수산부 (200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2008-2017)

해양수산부 (2014a),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14b),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해양수산부 (2015a),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5-2019)

해양수산부 (2015b),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14-2018)

해양수산부 (2016a),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2016b),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16-2020)

해양수산부 (2016c),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2020)

해양수산부 고시 2016-105호

홍성군 (2016), 홍성군 경관계획

환경부 (2012),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2013-2017)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자연공원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13-2022)

환경부 (2013),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부 (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다음, <http://map.daum.net/>

연안통합지도서비스, <http://coast.mof.go.kr/coastmap/map/map.jsp>

연안포털, <http://www.coast.kr/main.do>

해양수산부 바다생태정보나라, <http://webgis.ecosea.go.kr/>

VWORLD 지도서비스, <http://map.vworld.kr/map/maps.do#>

부 록

▼ 7개 시·군 주요 계획

구분	관련 계획
보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 4대 권역별 중기발전전략(2002) - 보령시 중기발전 전략(2007) - 보령비전 2025 발전전략 수립(2014) - 보령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2014) - 보령시·서천군 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2014) -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5) -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 변경(2014) - 공원녹지기본계획 - 2020 보령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2011) - 보령시 농어업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2012) -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2014)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무창포/장고도/진창 어촌계(2012) - 삼시도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2014) - 오천항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 계획서(2014)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2015) - 연육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수립(2011) - 원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 -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2013) - 섬지역 종합발전계획 (2005-2013)
아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아산 도시기본계획 (2015) - 2025 도시기본계획 -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2015) -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2016) - 공원녹지기본계획 - 아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2012)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 - 2020 도시기본계획 - 공원녹지 기본계획 -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2015) -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2016) - 서산시 항만개발종합계획 -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7)

구분	관련 계획
당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당진 도시기본계획 (2013) - 2025 당진시 기본계획 - 2020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2012) - 당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2009) - 당진항 발전계획 수립 - 향만기본계획 - 어촌정주어항 - 당진마리나 개발 기본구상 수립 - 2016~2020 환경보전 종합계획 (2016)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생태도시 발전 기본계획(2010)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2015) - 2025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2015) -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계획 - 서천군 경관계획(2015)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 공유수면 종합관리계획 수립 - 연안통합 관리계획 수립 - 연안정비 사업계획 수립 - 유부도 국제철새 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연구 (2013)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홍성군 기본계획 (2012) - 홍성군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2013)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2015) - 홍성군 경관계획 -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 남당항 다기능어항사업 기본계획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23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2014) - 태안군 도시계획 재정비 - 지역발전 기본계획 - 안면 도시재정비계획 - 태안군 경관계획 -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 해안관광개발 기본계획 - 어항관광개발계획 - 2015-2020 태안군 환경보전종합계획(2015)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17년

-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2016년

-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2015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연구진

연구책임

방재성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오병찬 책임연구원

박혜은 전임연구원

김성희 연구원

내부 심의위원

권영현 수석연구위원

이충훈 수석연구위원

한상욱 연구위원

황진찬 팀장(충청남도 공공디자인팀)

외부 자문위원

이상민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형복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차주영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최 및 협력기관

충청남도 국토교통국

정석완 국장

김관호 과장(건축도시과)

황진찬 팀장(공공디자인팀)

석민 주무관(공공디자인팀)

황인자 주무관(공공디자인팀)

이영희 주무관(공공디자인팀)

윤여국 주무관(공공디자인팀)

2017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발행 2017년 12월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연구기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처 삼성애드피아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를 불가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pdc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227

fax 041-840-1259

www.cpdcre.kr